

朴대통령 ‘大決斷’ 내릴때다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2015년 새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 결단을 내릴 때이다. 내려야한다.

이 단도직입적인 忠言을 위해 ‘대한언론’은 박근혜 정부 2년을 점검했고 18대 대통령의 취임사를 펴놓고 通讀했다. 2년의 정국은 불안정이었다고 대통령의 初心과는 거리가 있었다.

취임사의 대강을 정리해보면 〇...신뢰받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〇...정의로운 法治와 국가안보 〇...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로 제2의 한강기적을 일구자는 것이었다.

2015년은 광복70주년.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역사적 의미가 크다. 또 한 번의 국가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언론은 광복70주년의 큰 뜻을 살려 대한민국의 國基를 확고히 하고자 ‘나라 바로세우기’를 금년 주제로 삼아 캠페인을 벌여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대통령의 대 결단을 촉구, 나라의 내일을 희망차게 함께 가꾸어 가자는 것이다.

첫째, 소통의 정치, 투명한 인사정책을 통해 천하의 인재를 써야한다. 소통장애가 구조에 있었다면 과감한 구조개편도 해야 한다. 박대통령만큼 청와대의 생리와 권력의 속성을 잘 아는 이가 누가 있겠는가. 여기에 아버지 박정희대통령의 용인술을 참고해서 실세니 비선이니 하는 그림자는 철저히 차단해야한다. 읍참마속의 교훈도 새겨야한다.

지난해 연말 정국을 강타하고 국민을 실망시킨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사건과 비선라인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의혹은 검찰수사로 거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되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마음을 개운하게 해줄만큼 마무리되지는 못했다. 대통령은 이 사건을 수사결과와 별개로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혁신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진한 일들을 해소하고 소통하기위해 대통령의 정례기자회견과 정부의 홍보, 언론대책을 강구했으면 한다. 지난해 대한언론은 대통령의 기자회견등 정치복원 방안을 우리의 주장으로 제시했고 세월호 사건이후에는 ‘국민대각성운동’을 펴왔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가 대통령의 초심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의 대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의
주장

光復70주년 큰뜻살려
國基 확고히 다져야

人事혁신 통한 소통
從北잔존세력 척결
경제살리기

대통령이 직접
국민 설득할 필요

둘째, 신년 초에 공권력을 바로 세워 法治를 확고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從北, 反韓세력을 뿌리뽑아야한다. 그것이 남남갈등의 원인제거, 통일정책의 원칙일관, 그리고 국가안보를 다지는 첩경이다. 國運의 瑞氣랄까, 지난해 연말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선고했다. 국기와 애국가 조차 부정하면서도 민의의 정당에서 제3당의 자리를 틀고 앉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던 패거리의 추방이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해있는 잔존 분자들의 최후 발악을 제압하고 이 암 덩어리를 진멸하기까지는 험한 길이 남아있다. 국가안위를 확보하기위해서는 공권력을 바로세워 법치를 확고히 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검찰, 경찰, 안전기획부의 철저한 책임이행이 강화되어야한다.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통령의 각오였다.

셋째, 경제 살리기이다. 정부가 새해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교육 노동 금융 공공분야 4대 구조개혁의 성공여부는 역시 사회적 대타협과 국민의 지지향배에 달렸다고 본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의 뼈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나라 안팎의 사정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이끌어내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취임식이후 발목잡혀있는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의 장애를 치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광복70주년인 2015년은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國運隆盛 기회를 맞아야한다. 대한언론이 ‘나라 바로세우기’를 올해 여젠다로 내세워 지속적인 캠페인을 펴 나가고자 하는 이유이다.

2015년을 이끌어 갈 핵심은 역시 박근혜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눈과 귀는 온통 청와대에 쏠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의 2015년 대결단을 촉구하며 忠言을 드리는 것이다. 정말 지난해는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찌해야 하는지를 걱정해야했고 그만큼 불안이 컸었다. 청와대수석들과 비서실장, 장관들도 그리고 국회도 별무기대의 집단이었을 뿐이다. 물론 언론도 문제가 한둘이 아니

었다. 이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을 바로잡을 바늘구멍도 보이지 않았었다. 이렇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는 우리 머리위에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 뻔하다. 이제 모든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할 때이다.

“저에게 겁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라는 대통령의 표현에 신뢰가 간다. 거침없는 결단으로 나라 바로세우기를 이끌어 가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의 집권 3년차를 맞아 대한민국의 순항, 국운융성의 서광이 비쳐지길 기대한다. 광복 70주년, 2015년의 ‘나라 바로세우기’에 모두 한 마음이 되자. ㉞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회우)



賀正

48.

포근한 한 해가 되길!

謹賀新年

지난해 베풀어 주신 후의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健勝하시고 가정에 항상 祝福과 榮光이
함께 하시기를 衷心으로 祈願 합니다

2015년 元旦

社団法人大韓言論人會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대통령 ‘對面보고’ 정례화 하라

한달여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비선 실세 정윤희 파문’은 검찰 수사 결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한 간부경찰관의 조작·문건 유출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 예측됐던 대로다.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유출 문건 내용을 ‘찌라시’에나 나올 얘기에 비유하고 ‘문고리 3인방’을 “일개 비서관이요 심부름꾼일뿐”이라고 두둔하면서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기대치가 떨어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든 비선실세 의혹이 완전히 가셔질 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전 문체부장관도, 청와대 전 비서관도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실세가 있다고 믿었다. 심지어 친동생인 박지만 씨와 정씨의 공개적인 불화는 박씨가 정씨를 실제로 생각했다는 반증이다.

박대통령에게만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비선에 대한 궁금증이 따라다녔다. 혼자 생각하기 어려운 중요한 발언, 결정이나 인사를 하는데 공식라인에선 그렇게 된 사정을 알 수 없었다. 선거 때 중요 정책 건의에 대해 며칠 후 없었던 일로 하자는데 공식 보좌기구에선 바뀐 배경을 헤아리기 어려웠다. 별도의 비선 보좌팀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자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혹은 대통령의 소통 부족, 비밀주의, 과도한 인사보안으로 인해 증폭됐다. 따라서 비선실세 의혹을 가라앉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인사 쇄신과 함께 국정 투명성 및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검찰 수사 결과 비선 의혹이 전 행정관의 보고서 조작, 유출로 가닥이 잡혔어도 그 과정에서 청와대는 불쌍사나운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대통령의 동생과 측근, 전·현직 비서관들이 중인 환시리에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전직 장관까지 가세했다. 이런 상황을 수습하지도 못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40%내외로 곤두박질쳤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통제하지 못한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 개편을 포함한 국정 쇄신이 시급하다. 특히 사태를 통제하지

人事 혁신



성병국

·본회 논설위원
·전 중앙일보 주필

청와대 비서실-내각 국정 쇄신차원 개편 ‘문고리 3인’ 퇴진 마땅

실·국장이하 人事 장관에 자율권 줘야

與野-각계 중진등과 폭넓은 대화 기회를

못한 비서실장과 월권·인사개입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고리 3인’은 거취를 분명히 하는게 그나마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최측근 몇 명에 의존하는 듯한 불투명한 인사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각료, 수석비서관급의 인사는 평소 도덕성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한 수배수의 인재풀을 만들어 꾸준히 업데이트 하면서 장래 인사 수요에 대

오늘의 니대르

이 홍 우(본보 편집위원)



〈12월 26일 채널A TV 시사법정 방영〉

비하는 체제를 완벽하게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 그 인제는 각계에서 일류로 공인된 사람 중에서 고르는게 가장 기본이다. 그래야 지금까지와 같은 인사 참사를 피할 수 있다.

인사에선 물론 능력이 우선 고려 요소지만 안배와 균형도 중요하다. 아무리 능력이 고려됐더라도 울들어 우리는 행 등 금융회사 CEO 4명을 대통령 동문인 서강대 출신이 싹쓸이 했다거나

국가 정부 요직을 PK출신이 휩쓸다시피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장·차관급을 제외한 실·국장 이하는 장관에게 인사자율권을 주고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대통령은 선거 때 스스로 ‘책임장관제도’를 내걸지 않았는가.

인사 및 국정 쇄신과 함께 불통이미지를 불식하는 획기적 소통 노력이 요구된다.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조차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어렵다는 건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오죽하면 여당출신 국회의장까지 “대통령이 알려준 직통전화로 두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라”고 했을까.

박대통령의 대면보고 기피는 정평이 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상황이다. 국가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21회나 상황보고를 받았지만 서면과 전화로였을뿐 대면보고는 없었다. 대통령이 관저에서 정윤희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루머와 정씨 비선실세 의혹이 자라난 바탕이다.

이런 관저 근무 선호도 대면보고가 어려운 한 요인이다. 청와대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 관저, 비서동, 지하병커 등에 있지만 이동시간 절약을 위해 관저 집무실을 자주 쓴다고 한다. 여성 대통령의 사적 생활공간을 겸한 관저 집무실은 아무래도 다른 곳 보다는 보좌진의 접근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장관 및 수석과의 대면보고를 정례화해야 한다. 정례화할뿐 아니라 수시로 수석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결심을 얻을 수 있도록 집무실을 개방하고 비서동 집무실도 자주 활용했으면 싶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관·수석들과의 소통이 긴밀해지고 ‘문고리 권력’이란 말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또 이들뿐 아니라 여·야당 간부, 각계 중진과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사람도 두루 만나 건의와 쓴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폭넓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바란다. 선거때 헌신적으로 도왔는데 당선 후 전화 한번 없더라는 얘기에선 공명정대함 보다 인간적으로 야박함이 더 느껴질 수 있어서다. ☞

2015년 새해의 다짐

하겠으며

○...올곧은 목소리 높이기- 그동안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 올해는 우리 대한언론인회가 자타가 인정하는 고품위 ‘채찍 언론’으로 발돋움, 국내 언론의 지침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거리 많이 만들기- 쉽지않은 일이지만 연초부터 관련 기관과 단체를 상대로 우리 회우들의 경륜인 언론기술을 수용케하고 또한 사회에 나누는 아름다운 봉사의 뜻도 함께하도



김은구

·본회 회장

록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해마다의 관례행사 말고 “그거 제법 그럴듯하다”는 소리를 듣는 일을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그동안 기대가 컸던 뉴미디어에 대한 기대를 일단 접고 미디어에 대한 반성과 정화에 나서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분별하게 쏟아져 넘쳐나는 쓰레기 언론들 때문입니다. 우리 언론들이 정론의 길에서 벗어나 편가르기에 편파, 일방적소리만을

존경하는 대한언론인 회우 여러분!

2015년 새해 더욱 건승하시고 宅內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원로 선배님들 건강하셔서 후진들을 薰陶하여 주십시오.

올 한해, 회장인 저는 三思一言之 자세로 自重自愛하면서 대한언론인회를 威風堂堂하게 세워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회우여러분과 함께하는데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난해 우리 살림은 어렵게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살려서 좀 더 성숙하고 바람직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서 약속했던 1. 회원 확충 2. 올곧은 목소리 높이기 3. 일거리 많이 만들기를 계속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확충문제- 대한언론인회의 능력을 광역화해서 젊은 회원들을 영입

내는 지경입니다.

지난 한해는 나라꼴이 어지러워 다투어 굶아먹으려는 송충이 같은 패거리들 판이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주고 훈계할 우리사회의 어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언론인회가 언론계의 명실상부한 어른이 되어야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회 구성여건으로 당연한 ‘元老 言論人’에 그치지 말고 ‘大 言論人’의 역할을 떠 안을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없는지 심사숙고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우들은 이론적 전문가이기보다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현장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탁상위에서가 아닌 현장에서의 경륜이 바로 대 언론인의 긍지와 자존과 사명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

安保法制강화 불법행위 근절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위헌정당이라고 결정하고 해산을 선고하였다.

1945년 해방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이 뿌린 ‘혁명의 씨앗’이 내부에서 발아하여,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종북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정치권에 합법공간을 확보하고 국회에 까지 진출하여 종북의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 통진당은 우리사회에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수행하는 ‘합법적 공간’이었다. 통진당과 같은 종북세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 이후 지속된 망국적인 문제였으나 1994년 주사파 과동 및 2013년 이석기와 RO의 내란선동 등 특정사건 발생 시 반짝, 국민적 우려와 관심을 받다가 바로 시들어 버렸다.

종북세력은 의학적으로 비유하면 대한민국의 ‘악성 암세포’이다. 우리는 사전에 수차례 경고신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 처방을 하지 않고 단기처방에 급급하다 작금에 이석기 RO와 통진당과 같은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특히, 문제는 우리사회가 ‘호형호부’(呼兄呼父)라고 종북세력을 ‘종북’이나 ‘국가의 악(惡)’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민주화운동세력’, ‘민주개혁세력’ 등으로 포장되어 발호하도록 방치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인정하고 해산을 결정한 것을 계기로 우리는 각계각층에 포진하고 있는 종북세력을 척결하는 작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종북세력

우리사회에서 북한노선을 추종, 맹종하는 종북세력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전조선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공산주의 실현(적화통일)’이라는 대남적화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70년 제5차 당대회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전략을 채택하고 1980년대 대남투쟁 3대 과제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을 국내 종북세력에게 하달하며 남한혁명을 독려한바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제3차 당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30년 만에 당규약을 개정, 주체사상에 선군사상을 더하여 지도이념으로 채택하고 ‘인민’을 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NLDR) 전략을 명시하고 있으나, 남한혁명을 민주주의혁명으로 기만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일뿐 기존 전략과 다른 것은 없다.

또한 북한은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3대혁명 역량강화 노선’ 즉 ① 북한내부의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② 남한내부의 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 ③ 국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를 발표하며 전조선혁명역량의 강화를 꾀한 바 있다. 여기서 국내 종북세력들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이 두번째인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강화노선이다. 이는 ① 남한 내 민주주의운동(종북운동 의미) 지원 ② 남한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주체사상 의식화) ③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지하당과 보조역량 강화) ④ 반혁명역량 약화(군, 안보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무력화) 등으로 집약된다. 이의 연장선에서 북한은 그간 간첩을 남파시켜 국내 종북세력들을 포섭하여 지하당을 구축하고, 양산시키며 우리체제를 위협해왔다. 1990년대 이후의 북한이 직접 구축한 종북세력 관련 간첩 사건은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4년 구국전위사건, 1995년 간첩 김동식사건, 1997년 최정남-강현정 부부 간첩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2011년 왕재산간첩단 사건 등이 있다. 즉 종북세력은 북한 대남혁명의 핵심적인 남한내부 혁명역량이라 할 수 있다.

통진당과 RO사건 등을 접하면서, 우리사회가 간첩들이나 반국가, 이적행위자

從北 척결

특별기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이데올로기 교육 강화 불순자금유입 봉쇄

공안수사활동 강화 승狀기각 대책 강구 사면·복권 제한

범 국민적 대항세력 구축필요

및 종북세력들에게 너무도 관대하며 취약한 체제임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발 못붙일 풍토조성이 출발점

첫째, 종북세력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체제 내부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존재하는 취약점, 부조리 및 모순을 극소화시켜 살기 좋은 건전한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체제 내부의 모순과 부조리를 스스로 제거하고 정화해나감으로써 체제 내의 소외세력(Disadvantage Minority) 및 반대세력(Anti-Group)을 견인하여 종북세력들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이다.

둘째, 정부당국은 종북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른 공안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올바른 이데올로기교육 및 종북세력의 실체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실시 ②종북세력의 실체에 대한 정권담당자와 정치인들의 확고하고 명백한 인식필요 ③종북세력이 주도하는 불법 가두시위, 집회, 불법 노사분규, 화염병투척, 투석, 공공기관 점거 방화, 공공기물 파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공권력의 단호한 행사와 법집행 요망 ④정치적 결단에 의한 좌익사범(이들은 양심수가 아님)들의 무분별한 사면 등의 조치에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들이 진정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실질적인 사상적 전환이나 건전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에만 법의 관용이 필요 ⑤올바른 교정정책 등이다.

셋째, 종북세력의 활동 동력이 되고 있는 자금원에 대한 철저한 추적이 필요하며 불순자금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넷째, 국정원, 경찰 보안수사대, 기무사 및 검찰 공안 등 안보수사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즉 종북세력의 반국가적 활동을 제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국가안보시스템이 튼튼해야 한다. 안보도둑과 안보과괴자들이 날뛰는데 이를 제어할 안보과수꾼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국가존립과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2013년 국정원의 댓글사건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과 이석기 류와 같은 세력에게 적화혁명의 고속도로를 깔아주자는 것이다.

다섯째, 정당한 안보수사를 제약하는 정치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안보위해요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보

안법 개정, 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안보법제의 제정 및 개정이 요망된다. 특히,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가 해산되지 않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파괴를 허용하는 자해행위나 다름 없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반국가이적단체 해산권’을 입법하여 더 이상은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에 빌붙어 반국가이적활동을 하는 단체와 인사들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종북세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로 사회주의혁명을 공개적으로 획책하는 단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속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사법부 판단에 국가정체성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곱째, 현시기와 같은 사상적 혼돈국면에서는 북한과 연계된 종북좌파세력의 정교한 선전선동 공세에 대응하여 일종의 사상전(思想戰)을 전개해야 한다.

여덟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간첩 및 반국가이적행위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고 이들의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칭) 반국가이적 행위자의 사면, 복권 및 공직임용 제한법’을 발의할 것을 제안한다. 독일은 브란트수상 시절 동독에 대해 ‘동방화해정책’(일종의 햇볕정책)을 전개하면서도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안보기관과 법제는 강화시킨바 있다. 1972년 일명 ‘극단주의자 훈령’을 제정하고 반국가행위자들의 공직임용을 제한하여 1990년 통일 전까지 무려 3,000여명의 반국가행위 경력자들의 공직임용을 거부한 바 있다.

아홉째, 종북세력에 대항한 건전한 범국민적인 대항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 복합적인 종북세력의 문제를 정부의 공권력에만 의지하여 해결하기에는 그 성격상 너무 벅차다 할 수 있다. 실제 종북세력은 소수에 불과하나 그 영향력은 대단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종북세력들은 ‘행동하는 소수’인데 반해, 건전 자유시민들은 ‘침묵하는 다수’이기 때문이다. 최근 자유민주진영에서 종북세력에 대항하여 ‘행동하는 건전 다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문제해결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종북세력들을 배후조종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차단시켜야 한다. 이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종북세력의 상부세력이자 사령탑인 북한 김정은정권을 고립화시켜 궁극적으로 붕괴시켜야 할 것이다. [필자]

2015년 정기총회 公告

대한언론인회 2015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 시 : 2015년 1월 26일(월) 오후 2시 30분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안 건 : 1. 2014년 결산보고

2.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3. 기타 문화운영활성화 방안

※별도 연락없이 불참하시는 분은 위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大韓言論人會 회장 金銀九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디플레이션 차단대책 확실히 추진

한국경제가 저성장과 저물가가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경제로 돌입했다는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보다 훨씬 무서운 경제이다. 일본경제가 20여 년 동안 디플레이션에서 헤어날 수 없게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흔히 디플레이션은 저혈압에, 인플레이션은 고혈압에 비유한다. 이는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보다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발병하면 치유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발병하면 치유하기 어려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소비가 촉진돼 경제가 과열한다. 반면 디플레이션 때는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미루고 이는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일본이 20년 동안의 장기불황을 겪으면서도 아직 버티고 있는 것은 그 나라는 선진국이고 엔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디플레이션에 깊이 빠지면 그 수렁에서 건져낼 정책 도구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얼마 전 개최된 포럼에서 “한국은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면서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5년 차 정도에 진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총수가 이런 진단을 한 것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과 경제학자들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0년대 일본이 잘못된 통화정책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진 전철을 답습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물론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측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KDI 주장에 대해 “과도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총재는 저성장과 저물가를 극복하려면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 소비가 안 되는 것은 막대한 가계부채와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 문제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해 신규투자자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리는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예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과감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추고 무제한적 양적완화(통화 공급 확대) 정책을 구사했다. 미국은 중앙은행이 국채와 주택저당채권(MBS)을 매입했고 유럽 역시 비슷한 양적완화를 추진했다.

일본은 국민연금이 채권 비중을 줄여 주식을 사고 일본은행(BOJ)이 국채 매입을 대폭 늘렸다. 즉 중앙은행이 국민연금의 주식 매입을 지원하는 정책도 쓰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 한은이 과거의 인플레이 악몽에 시달려 온 경험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재 대폭적인 양적완화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선택

따라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경제정책은 세월호사건 이후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소비를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이다. 재정과 금융의 확장적 거시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주장하고 있는 가계부채 축소와 고령화 대책 등 구조조정은 장기불황으로 가는 길을 차단한 다음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지난 3년 동안 1%대에 머물고 있고 전세금이 집값에 육박하는 사실을 볼 때 집값은 이미 디플레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집값 하락을 예상해 집 구입을 미루기 때문에 전세금이 상승하는 구조다.

우리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다음과 같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국가정책 가운데 무엇 보다 우선적으로 디플레이션 진행을 차단하는데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것을 제의하고 싶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경제장관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디플레이션 대책을 명확히 잡아 주어야 한다. 정책은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 박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에 디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디플레이션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세제개편등 대기업저항 우려

박 대통령이 최소한 분기별 한 번 이상 경제장관 확대회의를 열고 부처별로 디

경제 살리기



최택만

·본회 논설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분기별 한번이상

경제장관 회의 열어

정책진행 상황 점검

‘초이노믹스’

대통령 신뢰로

힘 실어줘야

플레이션 차단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디플레이션 대책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면 여당도 관련 경제법안의 국회통과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적 과제인 디플레이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야당과도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특히 최 경제부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초이노믹스는 디플레이션을 차단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이다. 초이노믹스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아니라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의 소득증대를 추구하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정책이 분수처럼 밑에서 위로 치솟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기업이 호황을 누리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가계에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낙수효과와는 큰 차이가 있다. 야권은 아베노믹스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초이노믹스도 실패로 끝날 것이라며 ‘비판의 화살’을 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 경제부총리의 정책에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 그 정책은 중대한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초이노믹스에 대한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바란다.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가계소득 증대 세제 등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내 놓았다. 그가 취임 직후 ‘창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놓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종의 세제 패키지’는 과거 경제팀에서는 보기 어려운 경기부양대책이다.

지난 해 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들 세제는 대부분 기업의 협력 없이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데 벌써부터 대기업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만약 박대통령이 이 패키지 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시행 초기부터 이 세제는 상처를 입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디플레이션 차단 문제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명심하고 대책을 신속히 종합하여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문]

회우들이 펴낸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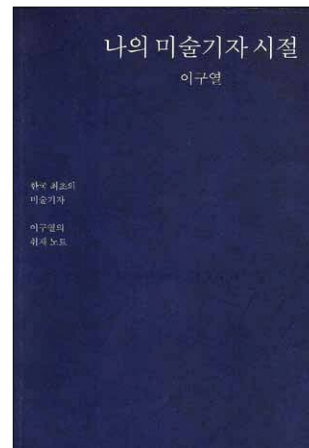
이구열 회우 ‘나의 미술가자 시절’

“한국 최초의 미술가자가 된 포병장교”라는 소리를 들으며 시작한 이구열 원로선배(한국 근대미술연구소 소장)의 기자 생활이다.

1959년 6·25 전진(戰塵)을 털어내며 민국일보에서 시작한 문화부의 미술기자 15년, 한국고대미술연구 40년의 한평생을 돌아보는 ‘나의 미술가자 시절’(이구열의 취재노트)이 출간됐다.

李 원로회우는 이 책에서 “나의 신문기자 생활은 주로 미술 담당이었다. 그래서 화가들이나 친구들은 나를 미술기자라 불렀다. 그때마다 내 나름의 영광을 느꼈다”고 했고, 고인이 된 미술대가들과의 교류를 회고했다.

박수근, 이응로, 김은호, 나혜석 등 고인이 된 한국근대미술의 거목들과의 추억은 바로 근대 미술사이다. 심심하고



객관적인 현장의 기록들이 파스함마저 안겨준다.

이구열 원로 회우는 황해도 연백의 신향민으로 군에 입대하기 전 만해도 화가를 지망하는 미술학도였다고 했다. 7년간의 군 복무를 마친 뒤 한 언론인의 도움으로 생각지도 않게 언론계 입문이라는 희망사항이 현실로 이뤄진 행운을 잡았다는

회고이다.

李 원로회우는 이밖에 ‘한국근대미술 산고’, ‘근대한국미술의 전개’, ‘북한미술 50년’, ‘나혜석 일대기’ 등 미술관계 서적만 20여권 출간해 한국근대미술연구에 이바지 했다. 이 책은 조선일보 Books에도 ‘사람의 온기 가득한 팔순 노장의 기록’으로 크게 소개됐다. (출판사 돌베개·209쪽·책값 14,000원) [국문]

대통령의 고독은 국민의 시름

大韓言論 2015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박근혜정부 출범 후 얼마 안 되어서 박대통령이 저녁식사를 관저에서 혼자 한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 박대통령의 노후가 너무 쓸쓸하겠구나’였다. 연이어 ‘저렇게 자신을 국민으로부터 격리시키면 국정을 어떻게 수행하나’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어떤 통로가 있다면 박대통령에게 일주일에 두 번은 다양한 분야, 계층의 국민을 초대해서 청와대에서 조촐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라는 조언을 꼭 하고 싶었다. 한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베테랑, 석학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한번은 회사원, 일용직근로자, 소상공인, 택시기사 같은 평범한 시민과 만나면 그 과정에서 저절로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국정운영의 방향과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할 목표가 도출될 것이므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소득은 국정책임자로서 국민을 폭 넓게 접촉함으로써 국민의 한가운데 있고 국민이 나를 응원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수행에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아니겠는가.

박대통령은 그런 국민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고려해 본 일조차 없을까? 박정희대통령과 육영수여사는 국민을 널리, 적극적으로 만났고 그를 통해 민심을 파악하고 국정에 대한 영감도 많이 얻은 것으로 안다. 육여사는 학부모시절에 당시 근혜양의 선생님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근혜엄마예요”라면서 청와대의 가족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두 분을 직접만나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도 두 분의 인간미를 간접적으로 느꼈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 접촉은 공식행사의 참가자들과의 스쳐지나가는 대면과 청와대가 기획한 시장방문 ‘행사’에서 상인들과 악수하는 것이 거의 전부인 것 같다. 그 정도로는 ‘민심’을 읽을 수 없고 얻을 수도 없다.

혹시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만날 때 듣기 싫은 이야기, 도전적인 말, 공개적인 비판을 받으면 국가원수로서의 체통이 손상된다고 생각해서 꺼리는 것일지 모르겠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국민은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만나고자 한다면 고마워하고 도움이 되려고 고심할 것이다. 불쾌한 말도 대통령이 경청하고 새기면 분명 국정수행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박대통령은 산더미같은 보고서를 매일매일 읽어내야 하는 대통령노릇이 노예노동이고 그 때문에 일반국민을 만날 시

청와대 생활

특별기고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영문학

1주일에 두번은
다양한 계층 초대
식사하며 대화를

보고서 읽기 그만
퇴근후엔 사생활 갖고
긴장 푸는 여유를

간은 전혀 없다고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유감스럽게도, 박대통령의 중요 통치방편인 이 보고서 때문에 국민의 민심이 이반될 지경에 이르렀다. 장관이나 부서책임자에게서 대면 보고를 받는 대신에 보고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국민의 깊은 근심을 자아낸다.

일생 글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수 십 년 필명을 날린 사람들도 가끔씩 글이 얼마나 불충분한 의사전달 수단인가를 통탄하는 것을 보았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명백해서 언급할 필요도 없는 글의 전제가 읽는 사람의 뇌리에는 없기 때문에 글의 이해가 완전히 빗나가는 일도 많고, 머릿속의 내적 단락이 문장에는 나타나지 않아 엉뚱하게 읽히기도 한다. 부디 대통령도 국정과약을 전적으로 보고서에 의존하지 말고 국무위원이나 단체장들에게 요점을 메모해와서 대면보고를 하도록 하면 훨씬 생생하게 국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장관이 지혜를 모을 수 있다.

학술대회에서 보면 발표자가 심혈을 기울여 쓴 논문이 매우 훌륭해도 토론자나 청중의 질문에 의해 발표자의 무의식 속에 있었지만 미처 의식화되지 않은 핵심적인 통찰력이 촉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물며 무수한 요인이 혼합되어 있는 현실적 사안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장관과 대면해서 여러 각도에서 의견을 교환하며 검토할 때 허점이 채워지고 탁월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보고서 읽기는 업무시간에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것으로 대체하고 퇴근 후에는 사생활을 가졌으면 좋겠다. 국가경영의 비전과 통치의 지혜가 대통령이 비전문가 일반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영화나 연속극의 어떤 장면이나 대사에서, 청와대 뒷산 산책길에서도 떠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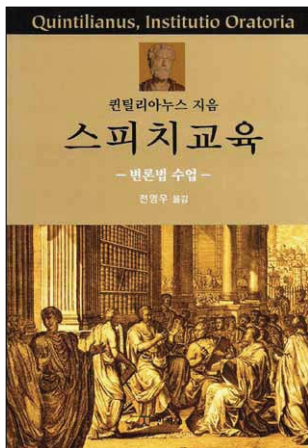
많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그들에게 노벨상을 안겨 준, 또는 인류의 은인이 되게 해준 업적의 싹을 일상생활 속의 우연(serendipity)에서 포착했듯이, 대통령도 늘 숙제만 하지 말고 사생활을 갖는 것이 오히려 국민과 이심전심 통하는 길일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주말에는 동기간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보고 음악회도 가면서 긴장을 푸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의 마음도 푸근해 질 것이다. 대통령의 행복은 국민의 위안이다. [필자주]

회우들이 펴낸 신간

전영우 회우 번역 ‘스피치 교육’

전영우 회우(전 동아일보·KBS아나운서 실장)가 제정기 로마의 변론법을 처음 집대성한 마르쿠스 파비우스 퀸틸리아누스(Marcus Favius Quintilianus ·35~95)의 명저 ‘변론가의 교육’ 전 12권 가운데 1~3권을 번역해 ‘스피치 교육-변론법 수업-’으로 책 제명을 새로 붙여 민지사에서 출판했다.

스페인 출생으로 로마 ‘레토릭’ 학교 선생이 되어 20년간 변론법을 가르친 퀸틸리아누스는 몇가지 저서를 남겼지만 그가 남긴 대표적 역작이 바로 이 책이다. 우리나라 교육학계에서 교수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그의 ‘교육론’이 널리 회자되어 오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의 저서가 번역 된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선을 보이게 된것이다.



한국화법 학회를 창립(1998.9)받기하여 초대 학회장을 지낸 전영우 회우는 ‘스피치 교육의 사적 진전 소고’(1962)를 석사논문으로, ‘근대 국어 토론에 관한 사적 연구’(1989)를 박사논문으로 작성해 신학문 개척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유럽 스피치 고전 번역에 심혈을 기울여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및 ‘프로타고라스’ ‘파이드오스’, 키케로의 ‘연설가에 대하여’를 우리말로 옮겨 펴내고, 이번에는 퀸틸리아누스의 ‘스피치 교육’을 번역 출판하는 쾌거를 이룬것이다.

이 책은 단지 직업적 변론가 양성에 머물지 않고 유아교육을 포함한 초등교육까지 고찰하고 있는데, 이는 퀸틸리아누스가 자기 아들을 비롯해 오래도록 젊은이 교육에 힘써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재호 회우 칼럼집 ‘진혼곡의 끝...’

‘진혼곡의 끝자락이 흐느끼는 까닭은’. 최근 발간된 정재호 원로 회우의 칼럼집 제목이다. 최초의 경향신문 주윤휘파원과 일본주재 특파원, 정치부장, 3선 국회의원을 지낸 論客, 원로언론인의 따끔한 질책이 한권의 칼럼 집으로 집대성됐다.

1부 목 놓아 울었던 그날 인데, 2부 박정희 박근혜의 ‘계주’, 3부 대통령의 ‘九容’, 4부 인간시장과 정치의 장터, 5부 김치의 철학, 6부 지워지지 않을 이름들 등 6개의 큰 주제 속에 주옥같은 칼럼들이 수록돼 있다.

세월호 참사, 석고대죄/ ‘안보’ 두 동강난 현장/바람(무덤, 막말, 김치, 신명)의 정치화/이순신과 박정희 리더십



의 공통분모/ ‘착한 독재자’ 박정희의 挑戰과 應戰/자유의 나그네 되어 훨훨 남도 3백리 하늘을 날다/ 부영이 바위에 부서진 냇이여, 아, 노무현!/추억 ’3김 정치’에서 땀길 것은 무엇일까/ JP 望九의 고별사 (1) 121자에 농축된 ‘臨終의 言語’, (2) 56편은 저자가 오랫동안 ‘경제풍월’과 대한민국 헌정회의 ‘헌

정’지에 기고한 격조 높은 정치 칼럼을 모은 것이다. 모두가 암울했던 한 시대의 실록이자 엄숙한 역사의 증언들은 바로 회초리를 든 저자의 외침으로 다 함께 귀를 기울여야 할 잠언(箴言)들이라 하겠다. (글마당 출판사 발행·350쪽·값 15,000원) [필자주]

저작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퀸틸리아누스의 현존하는 저작가운데 참 저작으

로 인정되는 것은 이 책 전 12권뿐이다. [필자주]

度넘은 시위公害 새해엔 제발 그만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가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자유와 질서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고 한다.

자유를 방임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를 너무 강요하면 자유가 위축 될 우려가 있다는 상충현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건국 이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도입한 우리나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한 마디로 예나 지금이나 나라 안이 너무도 어수선하고, 무질서해서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기가 힘든 상황이다. 날만 새면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시위 때문에 시민들은 스트레스만 쌓여 가니 아테네 철학자들의 고민을 짐작할 만도 하다. 요즘 서울 도심 곳곳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지는 시위 때문에 시민들의 짜증과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별의별 요구조건을 내걸고 벌이는 각종 시위는 사실 일반 시민들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일이다. 냉정히 말하면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이해관계가 얽힌 시위일 뿐이다. 매일 매일 살아가기도 바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과는 무관한 시위 때문에 허구한 날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말이 아니다. 보행도로까지 막고 하는 시위 때문에 가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짜증도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 시위자들은 그런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광화문 광장은 '시위백화점'

게다가 시위의 주체가 단순하거나 한가. 철도노조, 직장노조, 상공인들, 농어민 시위, 의·약사들의 시위에 가톨릭 신부, 불교승려들까지 교대 교대로 벌이는 시위 때문에 광화문 광장은 물론이고 청계천과 시청 앞 광장, 서울역 할 것 없이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

오죽하면 '시위공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더구나 광화문 네거리와 서울시청광장은 호텔, 백화점, 관공소가 즐비하게 밀집해있는 수도 서울의 얼굴이다.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다. 그런 도심 중 도심에서 연일 시위로 시끌시끌한 광경이 그들 눈에 과연 어떻게 비칠 것인가는 자명한 것이다. 어디 조용히나 시위를 하나. 황성기에다 대고 고래 고래 구호를 외쳐대고 그것도 부족해서 북과 징, 팽과리 까지 동원해서 북새통을 쳐대니 시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한 민간단체가 시위현장의 소음이 어느 정



지용우

·본회 논설고문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6·25참전 언론인회 부회장

‘그들’만의利害다툼 확성기·북·팽과리... 시민불편 한계점

무분별한 군중심리 다수결 원칙 훼손 민주주의 치명상 우려

도인가를 측정해보았더니 보통이 90데시벨이고, 심할 때는 120데시벨도 넘는다니 이는 소음공해 치고도 중증에 해당한다. 120데시벨이면 주변에 사는 시민들은 난청에 걸릴 만한 정도다.

이습우화가 생각한다. 물이 흐르는 계곡 상류에서 아이들이 아래로 돌 던지기를 하며 놀고 있다. 견디다 못한 아래쪽의 개구리 가족이 비명을 지른다. “애들아, 너희는 재미로 돌을 던지지만 우리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

“당신들은 임금 몇 푼에 매달려 시위를 벌이고 있는지 몰라도 날만 새면 보고 들어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민주주의는 좋지만 대가도 크다

영국인들이 엘리자베스 여왕 다음으로 내세우는 윈스턴 처칠이 민주주의의 장점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명언이 떠오른다. “민주주의는 허접투성이라고 일단 비판한 뒤에 하지만 다른 형태의 정치들은 위험투성이다”라고.

사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능가할만한 정치체제는 아직 없다. 그것이 인류역사상 모든 유형의 정치를 실험하고 내려진 결론이다. 왕권정치, 신정정치(세오크라시) 귀족정치(오우토크라시), 나치즘, 공산주의 등 등 모두 체험해 보았지만 민주정치와는 비교도 안 된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도 약점은 있다. 예컨대 ‘다수결의 원칙’이 그 하나일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비록 민주주의의 상징이지만 매두사 신화처럼 선과 악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작된 여론과 모략 중상 등에 휩쓸려 그릇된 선택으로 유도할 위험성도 크기 때문이다. 계몽주의 철학자이며 공화주의자였던 장 자크 루소가 일찍이 말했듯이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에 의한 무분별한 군중심리가 가세할 경우 민주주의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멀지않은 과거 자유당시절에도 입증된 바가 있다. 후보자들이 나눠준 돈으로 이루어진 고무신표, 밀가루표 등이 민의로 둔갑되고 심지어는 우의, 마의(牛意,馬意)까지 동원해서 여론몰이를 한 코미디 같은 난센스가 벌어졌던 것이 그 좋은 예다. 이런 반민주적 행태는 다시는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 ☞

‘땅콩 회항’과 노블레스 오블리제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무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다.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재벌 3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과 검찰 고위직 출신인사들의 성희롱 파문은 한국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을 불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 당시 영국 왕 에드워드3세에게 점령당한 프랑스 카레 시의 최고 부자인 외스티슈 드 생 피에르(Eustache de st pierre)와 시장, 부자 상인, 법률가 등 부유한 귀족들은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점령자의 요구대로 속 옷 차림에 목에는 밧줄을 걸고 교수대로 향하는 무거운 발걸음을 자청했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과 그 가솔들은 출발한 비행기를 후진시켰으며, 아들이 술집 종업원에게 맞았다고 가족장갑 끼고 강패들을 동원해 술집에 찾아가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아들을 국제중에 부정입학 시켰고, 맷집폭행을 자행했으며, 운전하다 할아버지를 폭행하기도 했다. 한국의 권력가들은 골프장 캐디와 여직원에게 다반사로 성희롱을 했으며, 혼외 자식을 두고도 시치미를 떼고,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에 위장 재산 증여 등 온갖 비리를 일삼처럼 저지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실종된 지 오래다. 대통령의 지지도를 40% 아래로 밀쳐버린 ‘비선조직 10상시의 국정난단’ 파문도 사회적 책무와 도덕성 부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재벌과 정치가와 법관 등 권력가들은 국민의 존경은커녕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 국민들은 불신을 넘어 혐오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엄연한 현실이다.

창업주들은 맨몸으로 부딪치면서 돈을 벌며 제조업과 기간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이 자란 재벌 2·3세는 노력과 경륜 없이 기업경영에 뛰어들거나 골치 아픈 제조업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요식업이나 패션업에 진출해 막가파식 경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오로지 돈만 좇지 사람과 넓은 사회를 보지 못한다. 재벌 2·3세들은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외면하고 자신의 몸집만 늘려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김 화

·본회 회우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현 데일리리뷰 정책고문

지금은 먹고 살 만한데도 우리 사회는 갈수록 천박해지고 있다.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해, 자기 존엄이 없다. 돈과 권력은 넘치지만 자기 존엄이 없다. 경제와 물질, 권력과 권위만 추구하면서 정말 소중한 인간의 품격을 잃어버린 것이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재벌과 권력가들이 혁명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결코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

공생·공유의 자본주의 길 찾아야

지금 한국사회는 돈이 돈을 불리고, 권력이 권력을 낳고 있다. 한국사회는 평등한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보통 시민은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투표권 외에 평소에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장관, 국회의원, 법관들의 일탈 행동을 볼 때마다 그들은 보통시민과 다른 선민이란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은 권력가들의 낮은 도덕성과 부실한 사명감까지 보태져 불신의 깊이를 더한다.

재벌들과 가솔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부재는 어쩌면 자본주의 한계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본주의가 아무리 자정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다. 재벌들은 막대한 이득을 쌓아놓고 이윤의 안전처가 아니면 투자를 않고 관망만 하고 있다. 재벌이 투자를 안 하니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빈부 격차는 갈수록 심화된다. 재벌들은 축적된 돈으로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정치에 손을 뻗치면서 이윤열차에 가속도를 낼 뿐이다.

자본주의 문제점을 지적한 프랑스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부자에게 소득과 부가 집중된다.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자본수익률이 높으면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피케티의 주장을 쉽게 풀이하면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버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자가 돈 벌기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7면으로 이어집니다.

憲法眞價 높이 통진당 해산 결정

사건을 사건으로 - 유례없는 사건이었고 그것을 해결한 방식 또한 가위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2013헌다1) 결정과 그 선고가 헌법의 이정표를 세로이켰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2014년 12월 19일 오전 10시 36분, 박한철 헌재 소장이 낭독한 이들 주문이 바꾼 게 통진당의 운명(運命)만이였을까. 통진당의 운명은 그 순간 또 다른 운명, 곧 운명(殞命)이었다. 이정희 대표의 보라색 스카프부터 검고 질게 암전하던 영락(零落)의 그 빈자리를 국민은 헌재에 대한 새로운 기대, 그런 헌재를 가진 새로운 자부심으로 채웠다. 헌재가 헌법의 진가(眞價)를 한껏 드높였으니, 역시 사반세기 역사의 일대 사건이다. 결정문은 347쪽, 그 분량 또한 헌재사 초유의 규모였다. 선고 직후 헌재가 줄이고 줄여 홈페이지에 실은 요지만도 A4 7쪽에 이른다.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의 의견으로 주문의 결정을 선고한다고 한 뒤 그 7쪽을 다시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대한민국 해체 절박한 위기의식 느껴

그렇다,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끝을 자른 한마디는 그러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해체될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의식까지 함께 읽힌다. 그러나 이번 사건 심판은 종전 결정의 리모델링이다. 결정 선례에 더해 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흔드는 어떤 정치집단의 그 어떤 시도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리고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명령받은 자신의 직분임을 재각인시켜 헌법재판 새 이정표의 의미를 보다 각별히 한 것이다. 이번 결정 취지 가운데 ‘정당의 헌법적 의무’는 1991년 결정 선례를, 또 ‘민주적 기본질서’는 1990년 결정 선례를 재록 내지 부연하고 있다.

“정당은 자발적인 조직이기는 하지만 다른 집단과는 달리 그 자유로운 지도력을 통해 무정형적이고 무질서적인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해 정리하고 구체적인 진로와 방향을 제시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공권력으로까지 매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도 정당의 기능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헌법질서를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1991.3.11, 91헌마21)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 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형시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1990.4.2, 89헌가113)

이번 결정문은 이들 두 선례를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의의’로 묶어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

특별기고



홍정기

·문화일보 논설위원

“다른 대안없다”

憲裁 단호한 선고

대한민국 흔드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 보여

‘도로 통진당’ 안되게

정당법도 고쳐야

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돼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어떤가, 이번 새 결정문은 앞서의 두 선례를 인용하면서 한결 미려하게 다듬은 차원이다. 달라진 점을 굳이 찾는다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나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 정당을 가장해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끝 또 한 번 더 자른 정도다. 국민이 혈세를 부담해가면서 정당을 도와주고 있으면 그 값어치나마 제대로 하라는, 일반 국민이 그 정당을 쳐다보며 난감해하는 시선을 헌법의 이름으로 대신 전한 것이다. 그러니 헌재가 “(통진당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난 뒤 그 정당의 그 깃발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할 일은 어차피 아니었다.

해산 반대의견도 통진당 면죄부 못돼

만일 더러의 사전 추론처럼, 이를테면 인용 5 대 기각 4로 법정 의견을 기각으로 기울여 ‘운명의 날’이 저물지 않게 했더라면 헌법은 그 순간 ‘통진당 알리바이용’으로 전락하고, 헌정의 미래는 그 날 그 ‘과거’에 의해 압도당할 것이다. 하긴, 유일한 반대자였던 김이수 재판관의 기각 의견도 통진당이 문제는 간단찮다는 사실을 전제하되 “면죄부를 주고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괴담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김 재판관의 기각 의견도 통진당이 내내 기밀 안식처는 아니었다.

헌정사 초유의 위헌정당 심판 그 후속 절차를 위해 이젠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설 차례다. 우선, 1952년 독일의 앞선 경험, 곧 연방헌재가 히틀러 나치당의 후신 사회주의제국당(SRP)을 해산하면서 그 당 소속 의원직을 먼저 박탈하고난

뒤 의회가 연방선거법을 개정한 전례를 격세 추급해야 할 것이다. 정당법도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 정당법 제40, 41조가 대체정당과 동일 명칭 사용을 금하고 있지만 당장만 해도 강령 또는 기본정책을 새로이 포장하면서 ‘새 신(新)’한 음절만 더해 ‘통합진보신당’이라든지 헌재를 조롱하면서 ‘통합’과 ‘진보’를 뒤집어 ‘진보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행세해도 어쩔 수 없다던가.

‘도로 통진당’이 현재의 역사적 결정을 도로(徒勞)에 그치게 해선 안된다. 안창호, 조용호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좇아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 또 주저한다면 ‘불사(不死)의 통진당’이 대한민국 헌법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주 또 저주할 것이다. [필자주]

6면에서 이어집니다.

부자세를 신설, 빈민층에 분배하자는 것이다. 피케티는 마르크스처럼 자본주의 타도 같은 급진적인 방법보다는 부의 분배를 통해 자본주의 고민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자본주의 창업자인 아담 스미스도 〈국부론〉보다 1년 먼저 낸 〈도덕 감정론〉에서 자본주의가 성공하려면 자본가가 소외된 세력과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재벌과 가솔들도 변화하는 경제 트렌드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사회적 책무와 도덕성을 제고시킨다면 서서히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재벌이 신뢰를 회복해야 자본주의 우월성이 입증된다. 그래서 재벌의 사회적 책무와 도덕성은 막중한 것이다.

물질보다 정신적 성장으로 삶 만족도 느껴야

검찰 고위직 출신 권력가들의 잇단 성추행 일탈행위는 마음의 성장이 사회적 성공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분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역대 정권 대통령 가족들의 이권행위로 인한 감옥행도 신분 상승을 따르지 못한 정신에 있다고 본다.

또 한국사회는 옛날 같은 물질적 만족 추구에 삶의 가치를 둔다면 결코 건전한 사회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이뤄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삶

의 만족도를 느끼는 시대는 올 수 없음으로 이제는 정신적·문화적 풍요로움으로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물질적 성장에 비해 정신적 성숙이 따르지 못한다. 그것은 철학의 빈곤에 있다. 이번 대한항공 파문은 기업철학의 빈곤에 기인하며,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일탈행위는 철학적 성찰의 부족함에서 나왔다고 본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철학의 대빈곤이다. 최근에 정치권이 철학공부에 너무 무관심이다. 역설적이지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 철학자를 우대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대 박종홍 교수를 교육 수석비서관으로 삼고초려해서 임명했다. 박 교수는 교육현장을 만들고 철학 깃든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에게 많은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규호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실존주의 철학 연구로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 교수는 전두환 정권의 철권통치를 완화시키기 위해 숨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법을 다스리는 비서관은 많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비서관은 없는 것 같다.

상사와 리더는 다르다. 상사는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직급이 높은 사람이지만 직급이 높다고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리더는 부하에게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영향을 미칠 때에 주어지는 호칭이다. [필자주]

乙未年

기쁨이 분수처럼 뿜어오르는 새날이기를

하나되는 平和의 길

2015년 光復70주년을 맞아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
칠십년은 너무 아득해라
이렇듯 먼 길이었다면
이렇듯 오랜 세월이었다면
벼랑 끝 찢긴 인생길 억울한 눈물의 강

그러나 질은 어둠 끝에 새벽이 오듯이
태풍이 가슴 헤집고 지나가도
이 땅에 생명은 뿌리 내린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았다
굳건히 일어난 장엄한 생명의 힘

또다시 눈부신 아침을 맞는다
활기 넘치는 날들 위에
화해와 창의를 길 바르게 열어
축복의 햇덩이 가슴에 키우며
돌아온 사랑같이 아픈 손 맞잡고

자랑스런 조국이며
이제 우리는 하나이기를
민족의 시련은 접고
정의로운 청정한 기운 안고
기쁨이 분수처럼 뿜어오르는
새날이기를

힘있게 아름답게 열어갈
정녕 하나 되는 평화의 길을!



김후란

·본회 회우
·문학의 집 서울 이사장



새해의 희망이 솟아오른다

2014. 12. 14 07시 30분 강릉해수욕장에서
(캐논 EOXO200mm)



정범태

·본회 원로회우
·전 조선·한국일보 사진부장

음력으로 보면 말띠해인 갑오년은 아직 한 달 반이나 남아있다. 사실상 을미년은 음력설인 양력 2월 19일부터 시작 되지만 어찌됐건 우린 양력으로 해가 바뀌면 음력을 은근슬쩍(?) 미리 끌어다 쓰고 있다.

2015년 올해는 을미년 양띠 해다. 색깔로 보면 청(靑) 양띠다. 우리 모두 새해를 맞으며 소중한 꿈을 설계했을 것이다. 각기 소망은 다르겠지만 양의 속성을 알고 올해의 삶을 꾸려간다면 그 의미가 더할 것이다.

한자에서 양(羊)자가 들어있는 미(美·아름답다), 상(祥·상서롭다), 의(義·의롭다) 같은 글자는 한결 같이 좋은 뜻을 담고 있다. 서양에서도 양은 사람을 대신해서 번제(燔祭)의 제물로 자주 등장하기에 '희생양'(犧牲羊)이라는 말도 있다. 양은 순한 동물이라서 양띠 해에는 딸을 낳아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속설과는 달리 양의 기질에는 언제나 폭발적인 성격이 숨어 있다는 것을 간과(看過)해서는 안된다.

3·1운동, 을미사변등 발생

양의 해를 훑어보면 구한말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갑오 동학농민혁명이 일

乙未年 양띠해 풀이



어난 지 만 11년째인 1905년에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었고, 그 후 5년이 지나 1910년에는 일제에 완전히 합병되어 국권을 상실, 대한제국과 국민은 주권이 없는 식민지 나라가 됐다.

1895년 을미년에는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을미사변(乙未事變)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조선 주재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지휘하는 일본 낭인 등에게 시해된 사건이다. 그리고 동학혁명군 지도자 전봉준이 처형되었다. 또 콜레라가 만연하여 수천 명이 사망했다.

1919년 기미년 양띠해는 3·1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역시 양띠해인 1907년 정미년에는 이완용과 송병준이 고종의

퇴위를 주장했다. 이 해 일본 헌병이 경찰권을 장악했다. 1883년 계미년에는 인천항이 개항되었고, 1871년 신미년에는 신미양요가 일어나 척화비를 세웠다.

박 대통령 시해도

1979년 양의 해에는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이 축출되었고 국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면서 전두환 등의 군부 쿠데타가 뒤를 이어 서울 거리에 탱크가 돌아다녔다. 그가 죽기 전 YH 무역 여공 200여명의 강제 해산, 김영삼 의원 제명, 부마항쟁 등의 정치적인 대사건이 줄을 이었다. 이 모든 것이 양띠 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사건들이다.

1967년 양의 해에는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 게릴라 체 게바라가 처형, 중국이 최초의 수폭실험을 강행.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6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동백림사건이 터졌다.

1955년 양의 해에는 중공군이 북한에서 철수 완료했고, 북한의 박헌영은 사형 판결을 받았다. 1943년 양의 해에는 미군에 패한 일본군이 과달카날 섬에서 퇴각하기 시작했고, 독일군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항복했다.

양은 남을 위해 사는 동물

양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먹이를 찾아 살아가면서 정작 자신은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동물이다. 살아서는 양유(羊乳)와 양모(羊毛)를 제공하고, 죽어서는 피와 가죽까지 자신의 몸을 모두 남을 위해 바친다.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면 무리들이 한데 모여 거대한 물결을 이루면서 이겨낸다.

우리 사람들도 이 양들처럼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한 이타행(利他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새해에는 소망해 본다. 2015년 을미년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이루는 한해 되기를 바랍니다. ☎

이보길 회원사업위원장·건강포럼간사

정치인들이여! 언론인들이여! ‘백일몽’에서 깨어나라

인생은 일장춘몽이라 했다. 그전에는 어디로 가든 내가 최연소자였으나, 이제는 어디서든지 최연장자가 되어 있다. 사람들은 서슴없이 나를 가리켜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모든 것이 눈 깜박할 사이의 변화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도 ‘조신설화’(調信說話)라는 것이 있다. 한 산사의 말단 승려였던 ‘조신’은 신도중의 한 사람이었던

어떤 처녀에게 남모르게 연정을 품었으나, 그녀가 귀한 집에 시집을 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크게 슬퍼하다가, 문득 잠이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처녀가 나타나 ‘당신을 사랑하여 왔노라’라고 했다. 조신은 크게 기뻐하며, 절을 뛰쳐나가 그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고 40여년을 살았으나, 살림은 몹시 가난하여 결실생활을 하였다.

그동안 다섯 자식 중 큰 아들은 굶어 죽고, 큰 딸은 개에게 물려 앓아눕게 되었다. 늙고 병든 부부는 도리 없이, 남은 자식을 각자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기로 하였는데, 그 찰나에 꿈에서 깨어났다. 이에 인생의 허무를 느낀 조신은 그 후, 정토사(淨土寺)를 창건하여 불도에만 전념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조신설화의 요지이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동안 무엇을 하였던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나에게는 남들과 같은 뚜렷한 업적이 없다.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을 남기지도 못하였고, 높은 빌딩을 남기지도 못하였다. 높은 벼슬을 하지도 못하였다. 언론에 입문하여 한 평생 뜬구름같은 뉴스를 쫓아다녔다. 한 마디로 ‘시시한 얘기’의 제작, 송출 사업에 종사하였을 뿐이다. ‘시시한 얘기’의 세계가 나의 모든 것이다.

뉴스의 주제는 끊임없이 달라진다. 달라지고 달라진다. 마치 뜬구름처럼...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그야말로 나의 일생은 ‘생야일편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요, ‘사야일편부운멸’(死也一片浮雲滅)인가. 그러나 나는 끝내 이 ‘시시한 얘기’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시시한 얘기’의 세계는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시시한 세계인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의 사활이 걸렸던 심각한 얘기라도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마련이고, 얼마 안가 까맣게 잊혀지고 만다. 6·25 전쟁은 우리의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든 큰 비극이었으나,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되는가. 대단한 고난을 딛고 나라를 이만큼 부

박현태 칼럼



박현태

·본회 원로회우
·전 KBS 사장

과연 이 시대의 핵심적인 과제인가. 원래 언론이 시시한 얘기를 선호하고, 흥미를 끌만한 사안이면 무엇이든지 크게 보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실지로 이것을 기사화 하려면, 이것이 가십(gossip)감인가, 스트레이트(straight)기사 감인가를 분별해야 할 것이다.

신문학 교과서에는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것은 일상의 상식에 어긋나는 사안은 기사가 되고, 합치되는 사안은 기사가 안 된다는 사례를 가르치는 얘기가 된다.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해야 할 과제는 이런 것이다. 정치도 언론도 어떤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전문가들이 다루어야 정말 옳은 정치, 옳은 언론이 된다는 사실이다. 정치가 무엇인지, 언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비전문인들이 정치를 농단하고, 언론인을 자처한다면 그것이 애국적인 정치, 정국을 찌르는 언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옛그제는 73년 전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에 쳐들어가 미·일간의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역사적인 날이지만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 그 때, 역사의 뒀안길에 처져있던 중국은 지금 대국이 되어 일본을 누르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거리에는 도처에 중국어 학원 간판이 걸려있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독립하여 한국은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동안 세계는 너무나 달라졌다. 전쟁의 양상도 달라졌다. 그 전에는 육군 중심의 지상전이 주였으나 이제는 우주 전쟁, 무인 전투기 전쟁, 로봇끼리의 전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인권 개념도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에서, 개인끼리, 국경을 초월하여, 무제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으로부터 개인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개념이 새로 등장하고 있다.

2014년 5월 13일 EU 사법재판소는

흥시키는데 죽을 고생을 다 하였지만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였다고 생각하며 평화와 민주정치, 자유 언론이야 말로 우리 본래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지금 이 땅의 야당이나 언론들은 목소리를 다하여, 청와대 안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실제 ‘10 상시(常侍)’애기 등을 떠들고 있으나, 이것이

신임회우 환영합니다

가나다순

김성령(金成寧)



1937년 10월 8일생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07, 22동 501호
(방학동,신동아아파트)
070-8635-2212
〈약력〉 서울신문사 교열부기자(66-70), 경향신문 교열부기자(70-73), 내외경제 기자(73-97)

이동화(李東和)



1940년 7월 21일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3, 802-201
(삼평동,봇들마을)
010-7132-2233
〈약력〉 서울신문입사(65), 정치부장 논설위원, 편집부국장, 편집국장 주필, 경기대 대우교수, 서울신문 사장(2009)

전영우(全英雨)



1934년 2월 5일생
서울 강남구 논현로 159길 50 (신사동)
010-5338-3841
〈약력〉 서울중앙방송국 아나운서(54), 동아일보 동아방송국 아나운서 실장(63),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실장(80), KBS해설위원(74-84), 수원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조희곤(趙喜坤)



1945년 12월 3일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삼환 아파트 212동 1902호
010-2234-6956
〈약력〉 경향신문사 제2사회부기자(75-89), 내외경제 신문 국제부장, 문화부장, 금융부장, 논설위원(89-97), 경제풍월 주간(2002)

최종천(崔鍾千)



1952년 10월 27일생
서울 관악구 성현로 80 관악드림타워 127동 504호
010-5281-4114
〈약력〉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사회부기자(78), 사회부장(93), 정치사회담당 부국장, 상임감사 및 관리국장, 이사회 광고국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한국경제TV 대표이사 사장, 한국경제TV 상임고문(현)

‘사람에겐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글에 대하여 어떤 스페인 사람이 자신의 채무기록의 삭제를 요구하는 주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므로 정치인, 언론인들도 구태에 얽매이지 말고 그 의식을 새롭게 가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이것은 가수 송창식 노래의 한 구절이었지만, 새삼 그 의미가 무엇이었던가가 궁금해

진다. 정치인들이여, 언론인들이여, 그대들이 꿈꾸고 있는 사이, 벌써 시대는 달라져 있다. 어서 백일몽에서 깨어나라.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 이내에 드는 대국이 되었으면, 그 주인인 우리는 모든 면에서 대국인답게, 세계에서 통용되는 정치와 언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

케이블 TV ‘完生’으로 끝난 ‘未生’

‘미생(未生)’이 끝났다. 케이블 TV tvN의 드라마 ‘미생’이 12월 20일, 20회로 종영됐다. 드라마 ‘미생’은 여러 가지 점에서 새로운 기록과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미생’은 시청률 84%를 기록했다. 순간 최고시청률은 10.3%였다. 이는 케이블 TV 드라마가 지상파 TV의 드라마들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이야기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상파 TV의 드라마들이 불황에 허덕이는 가운데 이루어낸 ‘미생’의 성공은 신선했다. 이제 드라마는 지상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선언이었다. ‘미생’의 주요 연기자들은 드라마 방영 도중에 광고 특수를 누렸다. 높은 인기의 반영이었다.

톱스타없이 신인군단으로 성공

드라마 ‘미생’은 톱스타의 기용 없이 성공한 드라마였다. 주인공 장그래 역의 임시완은 가수였다. 오상식 차장 역의 이성민은 연극과 오랜 단역 배우 생활 뒤에 최근 몇 년 동안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김동식 대리 역의 김대명도 단역 배우였다. 그밖에 장그래의 동기인 안영이 역의 강소라, 장백기 역의 강하늘, 한석울 역의 변요한 등 주요 배역들이 신인급이었다. 유대리 역의 신재훈, 정과장 역의 정희태, 하대리 역의 전석호, 성대리 역의 태인호, 강대리 역의 오민석, 천과장 역의 박해준을 아는 시청자가 얼마나 되었겠는가? 이런 신인 군단들을 이끌고 김원석 감독은 스타 군단들을 동원한 지상파의 드라마들을 제압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눌렀다.

지상파 TV들은 제작비의 압박을 호소한다. 이런 호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TV들의 숙원이었던 광고 총량제를 허용했다. 즉 전체 광고에 대한 시간만을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 TV들은 편성 시간의 15%에서 18%까지 광고를 자율적으로 편성해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지상파 방송의 복음인 광고총량제의 시행은 방송 광고의 지상파 쏠림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 TV 측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지상파 TV들의 제작비 압

박에는 주연급 배우들의 출연료가 큰 몫을 차지한다. 종합편성 채널의 허가 이후 더욱 치열해진 스타 영입 경쟁으로 배우들의 출연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더니 톱스타의 경우 회당 출연료가 1억 원을 기록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를 노릇이다. 이러다보니 제작비의 거의 대부분을 배우들의

출연료가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외주에 의존하고 있는 그 밖의 분야는 사정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지상파 TV들의

방송시평



유자호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특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드라마였다. ‘미생’의 무대는 종합 상사이다. 주인공 장그래는 계약직 사원이다. 일에 미친 일중독의 오상식 영업3팀장은 부하들에게 열정을 심어주는 이상적인 상사이다. 그는 장그래를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최영후 전무가 내민 미끼를 고민 끝에 물었다가 회사 감사에 걸려 자진 사퇴한다. 김

동식 대리는 오 팀장을 존경하고 신입사원을 이해하며 가르치는 합리적인 사원이다. 여기에 선인인지 악인인지 모호한 카리스마의 최전무, 공

에 가본 사람은 안다. 처자식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궁지에 몰린 남편의 유일한 의논 상대인 아내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그리고 아내는 가정과 돈이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억울한 처벌을 당해본 사람은 안다. 조직은 얼마나 비정한 곳인가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사람들은 일단 상대를 의심부터 하며, 그런 눈으로는 절대 진실에 가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가슴에 사표 써서 넣고 다니지 않는 직장인이 어디 있느냐?’는 오차장의 말이 공감을 준다. 또한 ‘일을 하다보면 끝을 알면서도 착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버텨라.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는 말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이런 절절한 대사와 연기들이 드라마 ‘미생’의 성공 비결이었다.

2014 방송비평상 수상

‘미생’의 소재는 바둑이다. 주인공 장그래는 고졸이어서 정규직이 못되는데 프로 기사가 되려다가 실패하고 상사에 취직한 것으로 설정돼 있다. 그래서 극중 내레이션을 바둑의 격언이 많이 나온다.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다. 그런 점에서 ‘미생’은 삶의 철학이 있는 드라마였다.

‘미생’이 오차장의 창업과 장그래의 영입, 김대리의 합류로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것은 다행이었다. 그럼으로써 정윤정 작가는 시청자들에게 멋진 연말 선물을 안겨주었다. 모름지기 드라마는 그래야 한다. 아픔이 많은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드라마를 보는 시간만은 행복하고 싶기 때문이다. 한국방송비평학회(회장 정중헌)와 한국방송비평회(회장 유일기)는 드라마 ‘미생’에 2014 방송비평상을 수여함으로써 행복을 안겨주었다.

성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지 않은 방송인이 어디 있겠는가? 올 한해 ‘미생’의 등장인물들처럼 밤잠을 설치며 제작 현장에서 삶을 불태운 방송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부디 건강해서 새해에 좋은 프로그램들로 만나기를 기원한다. 더욱이 새해는 서기어린 푸른 양의 해가 아닌가? ☞

개발연대 ‘일’에 미친 직장인 애환 그려 지상파 드라마 제작비 타령속 빅 히트

제작비 압박에는 이런 요인이 있는 것이다. 경기가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데 배우들의 출연료만 오르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 원인은 채널의 증가와 무분별한 무한 경쟁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지 않고 광고 부족 탓만 하는 것은 부담을 결국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방송사들의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톱스타 없이 최고의 시청률을 일궈낸 ‘미생’의 성공은 그 자체가 교훈이다. 미생의 원작은 웹툰 만화이다. 참신한 소재 발굴과 기획력 그리고 스태프와 배우들의 열정이 성공의 관건이라는 제작 현장의 상식을 ‘미생’은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불륜·출생의 비밀 없는 드라마

‘미생’은 또 한국 드라마의 고질인 불륜이나 출생의 비밀이 없이 성공한

은 자기가 과는 부하에게 떠넘기는 마부장, 까칠한 상사, 부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중간 간부,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탁월한 외국어 실력과 근성으로 돌파해나가는 안영이 사원, 따뜻한 리더십의 여성 팀장, 소심한 중간 간부 등 이 드라마에는 우리가 직장에서 만난 듯한 인물들이 실감나게 등장한다.

이 드라마를 보는 젊은 직장인들은 공감 속에서 보았다 한다. 또한 나이든 세대들은 자신의 직장 생활을 회상하며 보았다. 특히 개발 연대를 살아온 세대들은 미친듯이 일하는 모습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현대건설의 조선소 건설에 참여했던 한 퇴역 임원은 일에 미쳐던 당시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눈물’이라고 말했다. 드라마 ‘미생’은 바로 그런 한국인의 정서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미생’은 직장인의 애환을 실감나게 그려내었다. 사표를 내야할 위기

언론가 소식

관훈클럽 신임총무에 이선근씨

관훈클럽은 12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이선근 연합뉴스 논설실장을 제62대 총무로 선출했다. 취임식은 2015년 1월 9일(금)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갖는다. 이 신임 총무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베를린특파원, 국제경제부장, 정치분야 에디터, 경제분야 에디터, 편집총국장 겸 편집국장 등을 지냈다. 신임 총무의 임기는 내년 1월 11일부터 1년간. 한편 관훈클럽 감사에는 김의겸 한겨레 디지털부문 기자, 정혜승 KBS 해설위원이 선출됐다.

2014년도 관훈언론상 시상

관훈클럽은 12월 10일 저녁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4년도 관훈언론상(심사위원장 조용중·본회 원로 회우)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는 ‘송과 세 모녀 동반 자살’ 발굴 보도 및 후속 보도(사회 변화 부문)한 이슬기, 하재림, 김연숙 연합뉴스 사회부 기자, ‘육군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가혹행위를 집중보도(권력 감시 부문)한 윤진, 황현택 KBS 정치외교부 기

자, 아베 정권 우경화의 뿌리인 ‘일본회’의 실체를 보도(국제 보도 부문)한 김현기 중앙일보·JTBC 도쿄특파원, ‘형제복지원 사건’을 소설 구도로 재구성 보도(저널리즘 혁신 부문)한 박유리 한겨레 토요판 팀 기자 등이다.

신문발행인 포럼 송년모임

신문발행인포럼(회장 송필호) 송년모임이 지난 12월 4일 오전 11시 30분 전현직 발행인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19층 대화실에서 열렸다. 이

날 포럼에서는 김성기 전 국민일보 발행인 등 전직 발행인 8명에게 감사패가 증정됐다.

서울언론인클럽상 시상

서울언론인클럽(회장 강승훈·본회 회우)은 12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언론인클럽상을 시상했다. 수상자 중 본회 회우는 김준하 원로회우(원로언론인 특별상), 김경래 원로회우(한길언론인상), 박정하(한길언론인상), 최금녀 회우(이름빛낸 언론상) 등이다.

11면으로 이어집니다.

“통진당 해산 헌법수호” 높이 평가

2014년 12월19일 법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1의 압도적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그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했다. 애국 세력들이 구 민노당 때부터 종북정당 해산청원을 낸 이래 10년 만의 일이다.

우리 사회의 두 암적 존재인 종북 세력과 부정부패 중 하나를 척결하는 거보를 내디뎠다. 애국가와 태극기를 거부하고 공산주의가 패망한 후 세기가 바뀌어도 북한 3대세습 독재를 옹호하고 북핵 위협을 외면해온 통진당의 실체에 경악하면서 재판을 주시해온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수지가 ‘종북 통진당 대한민국 헌법이 심판했다’ (조선), ‘종북 통진당 해산, 민주 헌법 수호 위한 역사의 심판이다’ (동아), ‘통진당은 민주와 법치의 적이라는 압도적 현재 결론’ (문화), ‘북 추종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현재 결정’ (국민)이라며 해산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중앙은 ‘통진당 해산, 분단 상황 고려하면 불가피했다’ 라고 썼고 좌파지들은 ‘민주주의의 후퇴’ (경향), ‘민주주의 후퇴 우려’ (한국), ‘민주주의의 죽음 현재의 죽음’ (한겨레)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의 민주공화정에서 정부와 현재는 헌법 제8조 4항이 명시한대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 통진당에 대해 당연한 헌법적 책무와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현재가 대한민국 지켰다’

조선은 20일 사설에서 “현재는 통진당 목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종북 폭두각시에 불과한 통진당과 그 세력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이라며 “민노당 시절부터 통진당까지 왜 이 정당에서 ‘간첩 사건’이 끊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풀렸다. 일심회를 비롯한 당 간부들이 연루된 간첩 사건이 터지면 조작이라고 둘러대며 항의집회에 열을 올렸다.

김씨 왕조의 온갖 도발과 반인권적·반인도적 행위에 입도 뺨맞 못하면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온갖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데 앞장섰다. 이석기와 RO는 내란을 모의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현재가 이 종북 세력이 장악

한 통진당에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현재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냈다”고 찬양했다.

동아는 “현재는 합법적인 정당을 가장해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고 썼다.

동아는 또 “이석기는 법치주의와 선거제도를 뒤엎는 부정 경선으로 선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지는 한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결단이다.

창당 3년 만에 공중분해의 운명을 맞은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테러’라고 했지만 사망선고를 받은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한 통진당 세력”이라고 통박하면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개인과 정당 활동

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찌 맞춰나갈지는 법사회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野圈 연대 새정치연합에 맹성 촉구 左派紙들은 “민주주의 죽음” 강변

출대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 했다.

통진당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할 만큼 북한을 추종한 정당이었다.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는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그럼에도 이정희 전 대표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 나와 당의 판단이자 선택’이라며 북한을 옹호했다. 자유 민주질서를 흔들고 북한에 충성하는 세력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는 일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다”라고 강조했다.

3년간 국민 혈세 163억원을 받은 통진당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해산청구 최후변론에서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고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암적 존재”라고 규탄했다.

이를 끊어낸 박근혜 정부, 황 법무의 제소와 현재의 해산결정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세계도 “‘정당 해산’ 결정은 한반도 분단 상황이 이어

경향·한겨레 등은 현재의 결정이 논리 부족이라며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앞질러 한 정당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 결정이 RO 때문만은 아니다. 한겨레는 “현재가 자신을 자해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저격한 결과”라고 비난했지만 통진당 해산으로 북한 노선과 유사하다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죽고 헌법 정신과 현재의 체제수호 권위가 살았다. 경향은 “해산 결정은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시곤톱날을 거꾸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당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 정상적 정당이 현재에 제소되었다면 온 국민이 공분했을 것인데 국민 60% 이상이 통진당 해산 결정을 지지했다.

이 국민들은 해산 결정이 시곤톱날을 거꾸로 돌리는 통진당의 자업자득이며 ‘올 것이 왔다’고 느꼈으리라. 한국은 “통진당 해산 결정이 가뜰이나 분열된 우리 사회를 보수와 진보

양 진영 간의 대립으로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점도 우려된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어에 허술한 자유민주체제의 우리 사회를 북한 의도처럼 분열시키려 든 것은 현재의 결정이 아니라 사사건건 남남갈등의 진원지였던 통진당이었다. 이런 정당의 해산은 갈등의 초래가 아니라 해결책이다. 동아와 조선, 세계는 지역 의원 등 통진당 잔존 세력의 제거까지 강조했다.

“종북 결별하고 국민에 사과하라”

신문들은 새정치연합에도 맹성을 촉구했다. 조선은 “통진당은 ‘조선노동당의 남한 지부’ 같은 역할에 몰두한 결과 강제 해산 사태까지 맞게 됐다.

야권 정당들은 이참에 종북 세력과 확실히 절연하고 이들의 정치권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통해 통진당에 13석을 안겨줌으로써 ‘종북 세력의 숙주’ 노릇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결정은 새정치연합의 2012년 총선 연대에도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종북 세력과는 ‘문지마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혀야 한다. 정의당도 현재 선고가 이 나라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국민의 경고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는 정당 해산에 대해 “일각에선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체제를 위협하는 정당에 대해 현재에 제소해 책임을 묻는 정당해산 심판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다. 통진당의 종북성이 백일하에 드러난 최근에도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전 비대위원은 통진당 해산 반대 주장에 앞장섰다. 새정치연합이 통진당 숙주 노릇을 반성하지 못한다면 수권 정당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12월 24일 “야권연대가 북한 지령에 따라 각본대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북의 대남지령문을 공개했다.

좌파 정치세력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반성과 궤도 수정을 단행해야 한다. 통진당의 두둔 세력으로 몹시 당혹해하고 있을 좌파 언론들도 예외가 아니다. [K]

10면에서 이어집니다.

一耕언론상 시상식

윤임술 본회 원로회우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경문화재단이 12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일경언론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전주MBC가 ‘肉食의 반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윤 이사장으로부터 대상과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장려상은 한라일보의 ‘흑룡만리’, 국제신문의 ‘부산을 극지연구허브로 하자’가 받았

다.

바른말 보도상 시상식

한영섭 본회 원로회우가 회장인 한국방송인동우회가 해마다 실시하는 제23회 ‘바른말 보도상’ 시상식이 12월 12일 KBS국제회의장에서 있었다. 이날 수상자는 KBS보도본부의 양영은 차장, MBC보도본부의 박용찬 부국장, SBS 김현우 기자로 상패와 행운의 열쇠를 부상으로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전영우 회우의 ‘2014년 한글날의 세 가지 이야기’라는 특강도 있었다.

극동방송사장에 한기봉씨

극동방송 사장에 한기봉(56)씨가 선임됐다. 신임 한 사장은 연세대에서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87년 기자로 극동방송에 입사해 창원, 부산, 울산지사장, 편성국장을 역임했으며 1997년 9월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는 한국방송대상에서 해외부문 작품상을

받았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이다.

한국전문신문협회 50년사 발행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이덕수)는 지난 11월 20일 ‘한국전문신문협회 50년사’를 발행했다. 4·6배판 호화양장 582페이지로 엮여진 이 책은 119개 업체 회원사에 대한 소상한 현황 정보가 실려 있다. (값 150,000원)

大韓言論人會 2014 송년회 - 古稀회

180여명 참석 즐거운 환담

2014년도 대한언론인회 송년모임이 12월 17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김은구 본회 회장, 신우식 제재형 조창화 고문과 홍원기 명예회장을 비롯, 박재권 김윤덕 우경식 정범대 한영섭 김준하 원로회우 등 18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대한언론인회를 적극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고회 회우 축하연에서는 올해 만 70세가 된 16명의 회우들에게 축의금이 전달됐고 고회 회우를 대표해 권영국(전 CBS 해설위원장) 본회 기획조정위 간사가 답례인사를 했다. 권영국 회우는 답사를 통해 “대한언론인회가 성대한 잔치를 마련해 줘 고맙다”고 말하고 회원여러분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길 기원 했다.

김은구 회장은 이날 홍원기 명예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고 지난 1년 동안 대한언론인회를 성원해준 국방부 대변인실 김희범 사무관, 전자랜드 권혁대 홍보그룹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최대식 팀장, 정용재 차장, 최윤희씨, 그리고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송영용 사무국장, 임송숙 팀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송년회는 또한 성병욱 전 중앙일보 주필이 특별 출연해 ‘그리운 금강산’ 등 가곡을 열창했고 이광영 논설위원은 ‘100세시대를 살아가는 건강지혜’를 주제로 특강을 해 감사의 박수를 받았다. 2부 만찬 시간에는 전자랜드가 기증한 경품(5점) 추첨과 건배사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한편 한국신문협회 송필호 회장은 축하화환을, 문화일보 이병규 회장은 축하화환과 함께 금일봉을, 한영섭 원로회우, 김용발 회우, 태봉출판사도 금일봉을 보내와 자리를 빛내 주었다.

글: 정은종 상임이사
사진: 이철영 본보 편집위원

참고로 지난 1년 동안 ‘대한언론’에 광고로 협찬해준 광고주들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KBS 경기도청 경북도청 기업은행 두산그룹 문화체육관광부(2회) 바비엡 삼성그룹(2회) 서울교육청 서울시청 울산광역시청 유라코퍼레이션 전자랜드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 코바코(2회)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경제신문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한국INS 한국SGI 한화생명 현대자동차 화천군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운 송년회.



고회 회우들과 함께 기념 촬영.

古稀회우 답사

권영국 (전 CBS 해설위원장)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며칠 전 우리회원인 박석흥 교수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말처럼 오는 17일 대한언론인회 고회연 행사에서 고회를 맞으시는 분들을 대표해 답사를 하라는 회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 같으면 그리 걱정을 안해도 되는데 기라성 같은 원로선배님들이 계시는데 혹 실수 할까, 결례할까 그게 우려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날 박교수님으로부터 한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從心’이라는 아주 무겁고 어려운 명제 였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 말은 나이 70이면 무슨 말이나 행동에도 法道에 어긋남이 없는 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괜찮으니까 너무 염려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박교수님의 말을듣고 이분이 나를 안심 시키기위해 공자의 가르침을 주셨구나 생



답사하는 권영국 회우.

각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답글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從心’이라도 학식이나 학문 덕망 인격이 겸비한 분들에게나 해당되는 아주 엄한 뜻이 내포된 말씀이라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古稀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人生減省一分 便超脫一分’이라는 ‘榮根譚’에 나오는 이 말을 좌우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금은 모자라는

듯, 부족한 듯 사는 것이 곧 조금은 남나 넉넉한 삶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리들의 나이가 이제는 여기까지 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人生七十古來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杜甫시인이 살던 대에는 70살 살기가 꽤 어려웠으니까 古稀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100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두보선생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人生七十古來稀를 100세 고래고 칠테니 양해해 달라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선배님들 동료님 여러분 우리도 9988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성대한 고회잔치 베풀어주시는 대한언론인회와 금일봉까지 마련해 주신 은구 회장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회를 맞는 16인을 대표해서- 권영국 이었습니다. [인]

우 축하연 대성황



김은구 회장 인사말.



공로패를 받는 홍원기 명예회장(오른쪽)



신우식 고문 축하.



감사패 받는 송영용 전립선 관리협회 사무국장(오른쪽)



제재형 고문 건배제의.



감사패 받는 김희범 국방부 사무관(오른쪽)



조창화 고문 건배제의.



감사패 받는 권혁대 전자랜드홍보그룹장(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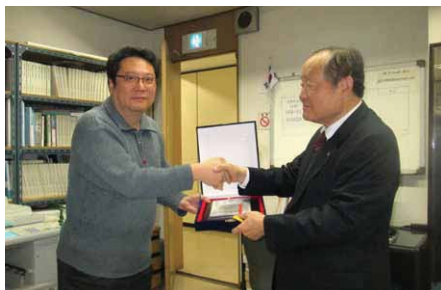
이광영 회우 특강.



감사패 받는 최대식 언론진흥재단 팀장(오른쪽)



성병욱 회우 축하.



감사패 받는 정용재 언론진흥재단 차장(오른쪽)



감사패 받는 최윤희 언론진흥재단 팀원(오른쪽)

사우회 소식

제3회 '경향모범사원상' 시상

경향신문

경향신문사우회(회장 김명수)는 12월 10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100여명의 회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송년회 겸 제3회경향모범사원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경향모범사원상은 경향신문 편집국 이기수 정책사회부장과 윤전기술국 이정호 기술관리팀장에게 수여됐다.

'몽도상'에 김광희·최명우 본회 회우

동아일보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전직 사우의 모임인 동우회(회장 김태선)는 지난 12월 1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4 동우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제6회 동우 몽도상' 시상식에서는 김광희 대한언론인회 자문역과 최명우 본회 편집위원이 상을 받았다. 몽도상은 고 이동수 초대 동우회장의 유족이 기탁한 5000만 원으로 제정됐다. 몽도(夢桃)는 고인의 아호다.

이철휘 사장 사우회에 2천만원 쾌척

서울신문

서울신문사우회(회장 김문진)는 지난 12월 15일자로 회보 28호를 발행하고 12월 10일엔 프레스센터 20층에서 150여명의 사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시낭송, 마술공연에 사우 색서폰, 아코디언 연주까지 곁들인 이날 송년의 밤 행사에서 이철휘 서울신문사장은 사우회에 발전기금 2천만원을 쾌척해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서울신문 사우회는 오는 12월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정기총회를 갖는다.

'올해의 조우회상' 첫 시상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우회(회장 인보길·뉴데일리 회장) 송년회가 12월 17일 저녁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전현직 간부들이 기념편을 잘랐고 77세가 되는 27명의 회원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또 올해 처음생긴 '올해의 조우회상'에 이도형(본회 상담역·월간 '현상과 진상' 대표)가 최우수상을, 신원철, 권태완씨가 우수상을 받았다.

제재형회장 재선임

한국일보

한국일보 사우회(韓友會)는 12월 10일 저녁 서울 남대문로 한진빌딩 16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갖고 제재형회장(본회 고문)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2년. 감사에는 홍원기(본회 명예회장) 박실(본회 전 이사) 회우가 뽑혔고 사무총장에는 문창재(내일신문 논설고문)씨가 선임됐다.

윤익한 회장 연임

헤럴드

헤럴드사우회(회장 윤익한)는 지난 12월 8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120여명의 회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갖고 윤익한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2년. 헤럴드사우회는 코리아헤럴드와 내외경제신문(현 헤럴드경제)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울진 원전 탐방

중앙매스컴

중앙매스컴사우회(회장 김원태)는 지난 12월 11일 한국수력원자력(주) 후원으로 울진 원전을 탐방(1박 2일)했다.

제4회 회우 서예전 성황

KBS

KBS 사우회(회장 정근춘) 서화위원회가 마련한 네번째 전시회가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KBS 시청자갤러리에서 열렸다. 특히 10월 25일에는 장 걸 중국 서법위원장 일행 15명이 서예전시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12월 19일에는 500여명의 회우가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가 성대하게 진행됐다.

비타민 에이스 세 가지가 베이직(Basic) 서플먼트라고 한다면 엽산(葉酸·Folic Acid), 비타민B12, 아연(亞鉛·Zinc)은 액티브(Active) 서플먼트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서플먼트는 비타민 에이스를 능가하는 여러 가지 효능을 지니고 있는데 엽산과 비타민B12를 함께 복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합세(合勢)하면 효과가 강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비타민에이스 세 가지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에 의해서 유해한 활성산소를 소거(消去)하므로 ‘청소부 3인방’으로 불리듯이 엽산을 필두로 하는 세 가지 영양소는 ‘숙련 3인방(hot shot trio)’으로 불리는 일꾼들이다.

엽산은 그 이름이 말하듯 시금치등 녹황색 야채나 육류, 간(肝), 효모등의 먹거리에 들어 있으며 조혈(造血)작용이 있다. 또 유산균의 증식인자(增殖因子)로서 비타민B군(群)에 속하는 영양소의 일종이며, 비타민M으로도 불린다. 보효소(補酵素)로서 갖가지 효소반응을 돕는다. 예컨대 신경세포의 성장에 관여하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이 임신초기에 식사나 서플먼트로 충분한 엽산을 섭취함으로써 태아의 신경관결손증(神經管缺損症)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상출산을 막는다는 이야기다.

엽산의 효능은 다양하다. 첫째로 적혈구를 만드는데 불가결의 영양소이다. 조혈작용이 있다는 말이 그 뜻이다. 그리고 단백질의 대사(代謝)를 돕고, 핵산(核酸DNA, RNA)을 만드는데 중요한 구실을 맡는다.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섭취 권고량은 180~200 마이크로밀리그램(Mcg)이며 임신중인 여성은 그 배량(倍量)인 360~400mcg이다. 미국에서의 섭취기준은 성인 400mcg, 임신한 여성은 600mcg이다.

엽산은 심장질환에도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는데 핏속의 ‘호모시스틴’치(値)는 핏속의 엽산 치와 반비례한다. 곧 ‘호모시스틴’은 허혈성심장질환(虛血性心臟疾患)의 리스크팩티므로 핏속의 엽산 치가 높으면 호모시스틴 치가 낮고, 엽산 치가 낮으면 호모시스틴 치가 높다는 이야기다. 엽산이 핏속의 호모시스틴 치를 낮춘다는 것은 심장질환에 예방효과가 있다는 말이 된다.

엽산은 다기능(多技能) 전사(戰士)다. 뇌의 핵산 합성에 불가결의 영양소가 엽산이며 비타민B12는 엽산의 한 몫을 돕는 원군(援軍)이 된다. 뇌혈관성 치매의 경우, 고혈압이 최대의 요인이며 당뇨병, 심장병, 꺾연, 음주(과음)등 동맥경화의 촉진조건을 지닌 사람에게 흔히 영양학적인 예방법으로서 동맥경화의 예방식 외에 엽산과 비타민B12, 신경막 구조 유지에 중요한 어유(魚油), 그리고 활성산소를 분해 소거하는 아연과 동(銅)의 보급도 유효하다. 이로써 엽산, 비타민B12, 아연 3인방이 뇌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는 전선에 함께 참전하는 케이스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장(腸)내의 기생충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15>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서플먼트(下)

이나 식중독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한편 보다 건강한 피부를 만든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식욕을 증진시키며 입 속의 궤양을 예방하고 빈혈을 막는다.

나의 경우 하루에 1,000mcg 1정을 아침 식후에 복용하는데 권장량의 배 이상이 되나 제조원인 미국 GNC사(社)의 1정 단

위가 1,000mcg인데다가 용기에 적혀있기를 ‘하루에 1정’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독성은 전혀 없으나 엽산의 과잉섭취는 비타민B12 결핍에 의한 빈혈을 감추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면 엽산의 섭취량을 늘릴 일이다. 또 비타민C를



권도홍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를 증대시키고 신경계의 건강을 유지한다(Essential For Energy Production and a Healthy Nervous System),’고 적혀있다. 섭취량은 식사와 함께 1,000mcg 1정이면 족하다.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이 적절히 쓰이도록 하며 자극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없앤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꺾연에 의한 암 발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 수면장애가 있을 경우 멜라토닌(Melatonin)이 유효한데 멜라토닌(미제) 용기에는 ‘Helps you fall a sleep faster & sleep well’이라 적혀

‘숙련 3인방’ – 엽산, 비타민B12, 아연

다량 섭취할 경우 엽산의 배설량이 늘어나므로 비타민C를 하루에 2그램(2,000밀리그램)이상 섭취할 경우 엽산 섭취량을 늘려야 될 것이다. 매일 1~5mg의 엽산을 단기간 섭취했을 때 얼굴의 기미가 사라졌다는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적혀있다.

비타민B12는 물에 녹는 수용성(水溶性)이며, 극소량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비타민B12는 ‘필수미네랄’을 구성요소로 지니고 있는 유일한 비타민인데 코발트가 구성요소로 되어있다. 위장으로부터는 잘 흡수되지 않는데 몸이 비타민B12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선 흡수의 과정에서 칼슘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갑상선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을 때는 비타민B12의 흡수는 순조롭다고 한다. 비타민B12의 결핍증상은 몸이 비타민B12의 여축을 탕진하고 난 뒤 5년이 지나야 나타난다는데 식사에선 비타민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서 공급된다. 식물성 식품에서 발견하기는 아주 드물다고 한다.

비타민B12는 적혈구를 형성, 재생하여 빈혈을 예방하며 심장병의 리스크팩트인 아미노산의 ‘호모시스틴’을 파괴함으로써 심장병의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는 엽산과 같다.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식욕도 증진시킨다는데 미국제인 ‘네이처 메이드(Nature Made)’ 용기에는 ‘에너지

있다. ‘빨리 잠들고 잘 잔다’는 효능이 있는 수면유도제다. 바꾸어 말하면 수면을 좌우하는 뇌내(腦內) 호르몬인 것이다. 멜라토닌은 뇌속의 송과체(松果體)에서 분비되는데 송과체란 ‘잿’을 말하며 크기가 잿만 하다는 뜻이다. 멜라토닌은, 가령 한국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갔을 때 시차 때문에 수면장애가 올 수 있으므로 그 때 수면장애를 해소하는 수면유도제인 것이다. ‘러셀·J·라이터(Russel J. Reiter)’가 쓴 『MELATONIN』이란 책을 읽어보면 멜라토닌이 마치 만능효과를 지닌 호르몬처럼 되어있다. ‘암을 예방하고, 항암제의 부작용을 완화하며 면역계를 강화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저항력을 높이며 불면증을 고치고 고혈압을 내리게 하며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멜라토닌이 잘 듣지않는 불면증(사람)도 더러 있다. 멜라토닌도 별 효과가 없는 수면장애의 경우 낮에는 비타민B12를 섭취(1,000mcg 1정)하고 잠자기 30분이나 1시간전에 멜라토닌 3mg 1정을 섭취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아이(유아)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많아 먹고 자고, 먹고 자게 되지만 가령(加齡)과 함께 점점 분비량이 줄어들어 노인이 되면 대개는 수면장애를 겪게 된다. 수면제나 멜라토닌 서플먼트와 같은 보조수단 없이도 잠

잘자는 노인은 복 받은 것이다. 위암이나 위장장애로 위장을 절제했을 경우 폐암에 잘 걸린다는 연구가 있다. 그 원인은 엽산과 비타민B12를 섭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위장을 절제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도 엽산과 비타민B12를 섭취했을 경우 폐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연은 교통순경처럼 몸 속의 일련의 작용이 능률적으로 흐르게끔, 또는 효소의 시스템과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지휘, 감독하며 단백질의 합성과, 골격과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인 콜라겐 형성에 불가결이며 근육의 수축을 좌우한다. 그리고 인슐린 형성을 도우므로 당뇨병을 앓는 사람은 아연 성분이 많이 든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당뇨병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GNC사의 아연(Zinc50)은 1정 함량이 50mg인데 하루에 1정이면 충분하다. 용기에는 간단하게 ‘면역기능을 돕는다(Supports immune function)’고만 적혀있다.

아연은 항산화물질인 SOD를 포함한 생명유지에 필요한 많은 효소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며 미각이나 후각(嗅覺), 면역기능, 성선(性腺)기능, 알콜대사등 갖가지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미량원소(미네랄)이다. 아연이 부족하면 미각장애나 면역력의 저하, 우울상태,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다. 또 몸속에서 작용하는 200종류 이상의 효소의 작용에 필요하며 갖가지 대사(代謝)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다. 엽산과 비타민B12, 아연이 모두 인체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다기능(多技能) 서플먼트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연이 지니고 있는 효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연을 섹스비타민으로 부르는 것은 전립선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작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식기능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전립선 염(炎)의 경우 톱니바퀴 야자수에서 추출한 소 파메토(Saw palmetto formula)와 아연을 함께 복용하면 염증이 완전 소멸한다는 연구가 있다. 아연은 전립선의 장해를 소거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몸 속의 상처와 외상(外傷)의 치유를 촉진시키며, 잃어버린 미각을 되찾게 하며, 불임(不妊)의 치료를 돕고, 콜레스테롤의 침착(沈着)을 줄이고, 감기를 빨리 낫게 한다는데 아연 결핍증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 동맥경화, 성기능 저하가 지적되고 있다.

아연은 육류, 맥주효모, 호박씨, 굴에 특히 많고 달걀노른자에도 들어있다. 알콜중독자, 당뇨병을 앓는 사람은 아연의 필요량이 많아진다. 남성은 전립선에 문제가 있든, 없든 아연의 섭취량을 늘리라는게 ‘비타민 바이블’의 권고다.

열거한 서플먼트가 여러 가지 효능을 지니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영양보조식품이란 점을 기억할 일이다. 그리고 약성이 있다 하더라도 약이 아니기 때문에 직효성(直效性)은 없다. 그러므로 치료가 아니라 예방에 유효하다. 그리고 일정기간(3개월 이상) 복용할 필요가 있다. ☞

‘가능성의 날개’를 달다

35th Anniversary
한국석유공사

동해-1 가스전 개발로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된 대한민국

전국 9개 비축기지에 확보된
1억 4천 6백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

한국석유공사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을 알기에
1%의 가능성에 날개를 달아, 100%의 성과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한국석유공사



에너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성장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한국석유공사의 의지를 담아낸 새로운 비전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隨想

새해에 떠오르는 생각들

을미년(乙未年) 새해를 알리는 붉은 태양이 어김없이 또 솟구쳐 올라왔다.

‘황새는 날아서/말은 뛰어서/달팽이는 기어서/한 날 한 시 새해 첫날에 도착 했다//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반칠환의 ‘새해 첫 기적’)’ 새해를 맞는 느낌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퇴한 누구에게나 새해는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허무함도 마음 한구석에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새해 설계가 필요하겠는가 만은 그래도 ‘뭔가’ 하는 생각에 세워보는 ‘이런 저런 계획’도 해마다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나버리고 만다. 부(富), 귀(貴)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와 미련을 이제는 버리자.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는데 새삼 연연할 필요도 없거니와 매달린 다한들 수명만 단축할 뿐 결코 잡히지 않을 신기루 이다. 자족(自足)하면서 즐겁게 살자. 그리하여 하늘이 내게 내린 명(命)대로 멋지고 성실하게 살다 가자.

‘오늘 아침 술 있으면 오늘 아침 취하고/내일 아침 근심이 들면 내일 아침 근심 하리니(今朝有酒今朝醉/明朝愁來明朝愁)’(唐代羅隱의 ‘스스로 달래며自遣’)

불가(佛家)에서는 세상일이 ‘모두 마음에 달렸다(一切唯心造)’고 하나 어디 속세의 우리들은 말처럼 쉽게 이해되는 일인가. 시선(詩仙)이라 해도 걱정은 마찬가지, ‘이백(李白)’은 교서 이운(李雲)을 전별하는 시에서 ‘칼 뽑아 물을 잘라도 물은 그대로 흐르고/술잔을 들어 근심 없애려 해도 근심은 더 깊어만 가네/인생살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내일 아침 머리 풀고 조각배 타고 떠나려네. (抽刀斷水水更流/舉杯銷愁愁更愁/人生在世不稱意/明朝散髮弄扁舟)’

‘이백(李白)’은 시 짓는 것 말고 ‘세상살이 어렵다(行路難)’고 하소연 한다.

‘갈 길이 어려워라 갈 길이 어렵고나/갈림길 많으니 지금 이길 어디메뇨(行路難行路難/多歧路 今安在)’

되돌아 보면 어찌 인생을 어려움이라는 일방면만 볼 것인가. 독일의 천재 문호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1749-1832)’는 83년 생애의 대부분을 불후의 작품들을 구술을 통해 사서가 받아쓰게 하면서 여자를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좇아 다녔다. ‘괴테’는 14세에 처음 사랑을 안 뒤 자신의 인생에서 큰 획을 긋는 10여년의 연애를 했는데 그 가운데 60세 때 ‘뮌헨’에서 19세 소녀 ‘히르츨리베리’와 그리고 75세 때인 1823년 초가를 보헤미아 휴양도시 ‘마리엔 바트’에서 55세 연하의 ‘울리케(Ulrike)’를 만나 5주만에 구혼을 했었다. 구혼을 하기 전 ‘괴테’는 의사에게 물었다.

“늙은 나이에 결혼하면 몸에 독이 됩니까?”

의사가 답하길 “걱정 없습니다.”

‘괴테’는 일기에 아래와 같이 적었다.

“사랑 받는다는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랑한다는 건 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울리케’는 괴테의 구혼을 거절한 뒤 독신으로 인생을 끝낸다. ‘헝가리’가 낳은 작곡가, 피아니스트로 낭만주의시대 음악사를 빛낸 ‘리스트(Franz Liszt·1811-1886)’는 항상 여자들 속에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알차게 일궈냈다. 열광적으로 음반을 타고 이글거리는 눈망울로 상대를 보면서 달콤한 이야기를 건네면 누구할 것 없이 몸을 떨었고 그것은 ‘리스트’의 음악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묘약 이었다. 24세 때 연상의 ‘마리 다구’ 백작부인과 사랑에 빠져 그해 큰 딸을 낳고 2년 걸러 차녀와 장남을 생산한 뒤 ‘바람’을 이기지 못해 유럽 여행을 떠나면서 이들의 사랑도 끝난다. 9년간에 걸친 유럽연주 활동에서 리스트는 귀부인, 무희등과 감로수를 챙기듯 사랑에 빠졌다. 그 가운데 폴란드 귀족 ‘카롤리네 자인 비트겐슈타인’ 공주와 사랑에 빠져 들었는데 갑자기 큰 딸이 죽자 둘의 사랑도 끝나면서 둘은 가톨릭 사제가 되어 나타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다.

‘리스트’는 말한다.

“사랑 없는 인생은 하루도 살 가치가 없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깊게 만든다.

‘엘리엇(T.S.Eliot)’도 ‘늙어가는군/늙어가는군/바지자락 접어들려 입어볼꺼나

(I'm getting old/I'm getting old/I shall wear the bottom of my trousers rolled - J. Alfred Pruflock 의 연가)’

이제 올 한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암 박지원’은 ‘새해 아침 거울을 마주하고 (元朝對鏡)’에서

‘거울 속 얼굴은 해마다 달라지지만/어린 마음 여전히 작년의 마음이구나(鏡裏顏容隨歲異/稚心猶自去年吾)’ 연암이 느끼는 바처럼 몸은 늙고 있으나 마음은 어제의 그리고 또 어릴 때의 그 마음이 아직도 살아 있음을 느낀다. 청정(淸淨)한 어릴 때 마음을 잃지 않는 것도 행복이란 기대치에 접근하는 중요한 인자(因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순진 무구(無垢)한 동심(童心)을 ‘본래의 모습(如來)’, 부처의 세계라 하지 않았던가.

‘세상은/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어린 것들 잇몸에 돌아나는/고운이빨을 보듯/새해는 그렇게 맞을 것이다.’ (김종길의 ‘설날아침에’)

새해는 어린것들 잇몸에 돌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언제나 희망과 기대 그리고 바람으로 설렌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다. ☞



이병대

·본회 회우
·전 KBS 보도제작국장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35>

젊게 느끼는 사람 오래산다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

자신을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영국 런던대 학 역학 및 건강관리 연구(Institute of Epidemiology and Health Care) 스텝토(Andrew Steptoe) 교수 팀의 연구결과가 최

근 미국 내과학술(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되어 관심을 끈다.

스텝토 교수 팀은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적인 추적관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이가 얼마나 된다고 느끼는가?(How old do you feel you are?)”라는 질문을 주고 이에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 관찰하여 이 같은 결과를 얻어 냈다.

조사 당시 평균 나이는 66세였고 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나이의 평균은 57세였다. 조사대상자의 60%는 실제 나이보다 3년 이상 젊게, 30%는 실제 나이대로, 5%는 자기 나이보다 1년 이상 더 늙은 것으로 대답했다.

추적 조사 결과 연구기간동안에 사망한 사람 중 실제 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느낀 사람이 25%로 가장 많았고 실제 나이와 같게 느낀 사람이 19%로 다음으로, 실제 나이보다 젊게 느낀 사람은 14%로 가장 낮았다.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더 많다고

느낀 사람은 젊다고 느낀 사람들보다 사망위험이 무려 41%나 더 높았다. 이러한 수치는 이들의 만성적인 건강문제와 육체적인 활동제약 및 우울증 등을 보정한 후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 실제 나이보다 더 들었다고 느낀 사람은 10.2%였는데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느낀 사람은 이의 절반이 안 되는 4.5%였다.

스텝토 교수는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기 나이가 사망위험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놀랐으면서 앞으로 의사들은 신체검사를 할 때 환자들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나이를 묻고 이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텝토 교수는 그러나 이번 연구가 자기 나이보다 젊다는 생각 자체가 직접적으로 수명증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위치한 조지 메이슨 대학(George Mason University) 복지진흥센터(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Well-Being)의 매덕스(James Maddux) 심리학 교수는 낙관적인 생각이 사람의 전체적인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라고 평가했다. ☞

쓰레기에서 전진 은행알들

요즘 늦잠을 즐길 때가 참 좋다. 나른한 게으름이 자족(自足)이다.

“여보 이거 좀 봐!” 평온을 깨는 아내의 높은 목소리다.

또 어디 다쳤나? 얼른 일어났다. 그리고 소리 나는 데로 갔다. 냄새가 난다. 냉장고 문이 열려 있고 음식 쓰레기가 널려있다. 상황이 보인다. 며칠 어딘가를 다녀온 아내가 주부 역할 좀 해보려

고 냉장고 청소하다 문체와 부딪친 것이다. 상한 김치, 썩은 과일과 생선 등이 뒤섞여 널브러져 있다.

내게 또 커다란 과제가 떨어진 것 같다. 그들과 섞인 흰색의 놈들이 날 쳐다본다. 은행 알들이다. 내 생각나느냐고 묻는 것 같다.

살며 생각하며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
·전 KBS LA지국장

〈아! 너희들이구나! 가을에 고향으로 집을 옮긴 친구 집 마당에서 주워온 너희들〉 겨우내 뒤뜰에 처박아 뒀다가 수돗가에서 썩은 껍질 벗기고 닭고 닭아서 냉장고에 모셨었는데 음식쓰레기에 섞여 있다니 끔찍하다. 음식쓰레기 봉투를 가져온 아내를 쳐다보곤 혼자 중얼 거렸다.

“그래 너희는 절대 음식 쓰레기가 아니지”

옷부터 갈아입었다. 다부지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껌어붙이니 이미 냄새는 날아갔고 썩은 김치도 별것 아니다. 바가지 하나를 따로 챙겼다. 그리고 은행 알들을 주워 담았다. 쓰레기들을

17면으로 이어집니다.

‘100개의 눈’으로 언론보도 감시 다짐

총체적 난국시대의 언론 주시

이도형(李度珩) 원로 회우는 “25년 역사와 전통의 보수 월간지 <한국논단>을 300호로 접고 월간 <현상과 진상>을 2015년 1월호로 창간하였는데, 쉽지 않은 결단이다. 편집 방향과 비전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특유의 달변으로 <현상과 진상>을 설명한다.

“현상은 표면에 나타난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겉모습보다는 다른 진면목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컨대 작년 10월 3일 갑자기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겠다는 핑계로 고려항공편으로 인천을 다녀간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3인은 표면에 나타난 겉모습일 뿐이죠. 언론은 그 표피적 현상만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 고첩들에게 지령을 내리고 갔던 것입니다.”

李 발행인은 올해 82세 고령인데도 패기에 넘치는 의욕으로 총체적 난국 시대에 한국 언론이 가야할 바른 방향을 매우 강도 높게 제시했다.

“저는 새 Argus(희랍신화에 나오는 백 개의 눈을 가진 거인)를 위한 회우지(현상과 진상)를 매달 펴냄에 있어 세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려 합니다.

첫째는 언론이 멋대로 만들어 내는 여론... 국민을 오도하는 언론의 여론조작이야말로 암같은 병입니다. 예를 들어 리드기사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라고 쓰면 一波萬波 언론이 바라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청와대 문건’이 그렇고, 문창극 총리후보 보도가 그랬으며 2008년 6월의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그랬습니다. 사회적 국가적 에너지의 무용한 소모가 얼마나 컸습니까. 언론의 이러한 작태는 바로잡혀야 하는 겁니다. <현상과 진상>의 존재이유죠.

둘째 빗나가고 엇나가는 안보보도. 예를 들어 동두천과 용산의 미군기지 이전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 하여 동두천 재개발이 지연되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는 용산기지가 그대로 눌러앉게 되면 서울시의 공원조성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지역재개발지연과 공원 조성 차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공격을 받아 전국 주요도시들이 초토화돼도 바꿀 수 있는 가치인가?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THAAD)의 한국배치를 왜 부정적으로만 쓰는가? 남한이 초토화돼도 좋다는 뜻인가? 마지막으로 북한보도문제가 있습니

새月刊 “현상과 진상” 창간 李度珩 원로회우

인터뷰 글·사진= 유한준(본보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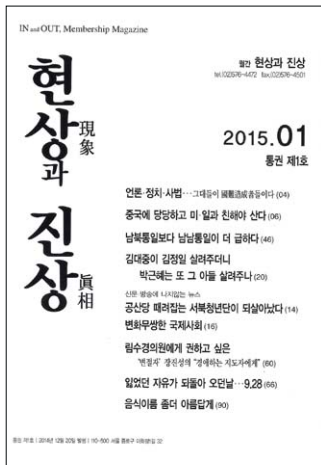


월간 ‘현상과 진상’ 편집방침을 설명하는 이도형 원로회우.

25년 이어온 ‘한국 논단’ 발행중단 非賣品으로 순수회원들에만 배포

다. 한국언론은 북한에 대해 無智할뿐더러 무관심합니다. 특히 TV에서는 맨날 인민군의 무력시위, 김정은, 인공기...를 의미도 없이 자주 방영합니다. 이건 아마도 지령과 조종에 의한 고도의 심리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공기를 태극기나 성조기 심지어는 유엔기와 동등한 크기로 기회가 있을 때 다 방영하는 것은 남한사람들을 순치시키는 심리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신은미. 그가 뭐 길래 허구한 날 화면과 지면을 매우는겁니까?

<현상과 진상>은 이러한 일련의 현실 사태를 그리스의 거대한 신 아르거스



‘현상과 진상’ 창간호 표지.

(Argus)처럼 100개의 눈으로 우리 언론을 지켜보자는 사명감으로 창간, 순수한 회원제(월 1만원)로 배포하여 올바른 여론을 환기코자 한다.

현재 150명 가량이 회원으로 동참하고 있는데 500명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 기존의<한국논단>회원도 약정 기간까지는 예정대로 배포한 뒤 기간이 끝나는 대로 <현상과 진상> (국관 100p/비매품) 회원으로 함께 가도록 할 것이다.

枯死 작전에 맞선 고난의 길

-1989년부터 <한국논단>을 보수 성향 월간지로 이끌면서 고난의 길을 걸었던

데.

“사실 1989년부터 <주식회사 한국논단>은 좌파 성향의 개인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도 굳건히 버텼었다. <한국논단>과 ‘이도형’을 고사시키려는 소멸작전에 무척 시달려왔다. 2014년 송년호로 휴간하여 역사의 뒀안길로 보내면서 감회가 착잡했다. 1997년의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5인) 사상 검증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17건의 민·형사 고소·고발을 당해 시가 7억원짜리 자택이 날아갔지. 김대중 정권 때 국가정보원의 도청 대상에 오르기도 했고, 온갖 핍박과 고초를 다 겪었지만 이도형은 죽지 않았다.”

보수 세력을 대변해온 원로 언론인의 기백이 그대로 묻어났다. 靑羊의 올미년, 회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福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덕담을 전했다.

현장 논객의 표상

李원로 회우는 대한민국 정통성 수호에 앞장서온 분노와 격정의 언론인이자 출판인이다. 조선일보 기자로 28년간 근속하면서 베트남 특파원(1966년), 주일특파원 8년(1978-85년), 논설위원 8년(1985-92년), 관훈클럽 총무(1986년) 등을 지냈고, 특히 주일특파원 재직시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기술보도를 주도하여 조선일보가 앞장서 독립기념관을 만들 계기도 마련했다. 1997년 5월 박홍 신부가 제소되자 노재봉, 오제도 등 보수인사 70여명으로 박홍 신부 후원회를 조직,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언론 외길을 걷고 있는 李 원로 회우는 현장 논객의 표상이다. 스스로 ‘조선인, 한국인, 비한국인’ 등 3중 인생이라면서 <자전적 현대사>를 저술하였다.

지금도 매주 월, 목요일 1시간씩 검도 연습으로 심신의 道를 쌓고 있는 공인 4단의 검도인이다. 그동안 언론인 활동을 통해 안보보도 부문 ‘관훈언론상’, 일본 교과서 파동을 주도한 공적으로 ‘승당 언론상’,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강조하여 대한민국 사랑회로부터 ‘우남 애국상’, 5·16 민족상(2004년), 효령상(2012년) 등을 수상했다.

12월 17일 밤 열린 조선일보회우들의 송년모임(조우회)에서는 ‘2014년 朝友’로 선발되기도 했다. ㉞

16면에서 이어집니다.

봉투에 채우고 나니 휴우! 하고 큰 숨이 나온다.

가만 그런데 이놈들이 썩었으면 내가 뭘 한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놈을 집어 깨물었다. 멀쩡하다.

내가 나한테 너 잘했다고 스스로 했다. 그리고 주방으로 달려가 박박 닦았다. 그리고 또 닦았다. 소쿠리에 받쳐놓고 보니 참 예쁘다. 송골송골 예쁜 은

행알들이 웃는다. 좀 아파진 허리를 펴고 두 팔을 번쩍 올렸다. “너 오늘 만세다!”

다시 깨어난 은행 알들이 너무 예쁘다. 복덩어리들이다. 은행 알을 한 움큼 쟁겼다. 그리고 볶았다. 맑은 빛을 띤 은행 알 그리고 익은 향내! 썩은 음식 쓰레기와 같이 버려졌던 은행 알을 쟁겨 그 향과 맛을 즐기는 나!

중학생 때 배운 한자가 생각났다. 입립개신고!(粒粒皆辛苦)

농부 들이 힘들여 거둔 곡식 한 알 한 알이 모두 힘들여 땀 흘린 애씀의 결실이니 밥알 하나도 귀하게 여기라는 가르침이었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고 가르쳤던 호랑이 선생님 생각이 났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곡식 낱알 하나라도 귀히 여겨서 절약하라는 가르침을 생각하는 나!

수주대토(守株待兔)란 말도 생각났

다. 토끼가 나무에 부딪쳐 죽은 것으로 재미를 본 시골 사람이 그 나무 밑에서 다른 토끼가 또 와서 부딪쳐 죽기를 기다린다는 중국 고사.

요즘 粒粒皆辛苦는 내버리고 守株待兔만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하는 세태다.

저승에 계신 선생님께 SNS 한 줄 보내드립니다.

“호랑이 선생님! 저 어때요! 칭찬 받고 싶습니다.“ ㉞

溫故知新

調信의 꿈과 人生

또 한 해를 보내고 맞는데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다. 세상은 어찌하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져도 여전히 어지러운가. 그것은 인간의 하찮은 권세와 물질적 욕망 탓이다. 허망한 인생사를 관조하는 뜻에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調信)의 꿈 이야기를 다시 읽어본다.

조신은 신라 때 강원도 영월 세달사의 종인데 절이 소유한 명주군(강릉)의 농장 관리인이 되었다. 조신은 명주로 가서 일하다가 그곳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보고 그만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다. 조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낙산사 관음전에 가서 관세음보살에게 빌었다.

“제가 이곳 태수의 따님을 그지없이 사모하오니 저를 가엾게 여기사 그녀와 제가 부부로 맺어지게 해주소서! 저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간절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빌기를 해가 몇 차례나 바귀도록 거듭했다. 그런데 이를 어찌랴. 그 사이에 태수의 딸은 혼처가 생겨 시집을 가버리고 말았다. 그날도 조신은 낙산사 관음전에 가서 관세음보살에게 빌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은 관세음보살을 원망했다. 그렇게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아침부터 날이 저물도록 관세음보살에게 하소연하던 조신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조신이 정신없이 잠결에 휩쓸려 들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꿈에서도 그리던 김씨녀가 그지없이 밝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희고 고운 이를 드러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스님! 제 말씀을 들어보소서! 소녀가 일찍이 스님을 어렵듯이 기억하여 마음속으로 사랑하여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는데 부모님의 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제는 죽더라도 한 구멍이 안에 묻히기 위하여 이렇게 찾아온

것이랍니다.”

그 말을 듣자 조신이 너무나도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리하여 김씨 처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그로부터 무려 40년을 함께 살았다. 그렇게 더불어 살면서 자식을 다섯이나 낳았으나 가난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집은 속이 텅텅 빈 네 벽만 남았고, 일곱 식구가 끼니도 제대로 이를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 견딜 도리가 없어 조신은 식구를 모두 이끌고 집을 떠나 동남길에 나섰다. 집을 떠난 지 어언 10년, 온 식구가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돌아다녔건만 사정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명주 해현 고개를 지나는데 드디어 열다섯 살 난 큰아들이 굶어서 죽어 버렸다. 남은 식구가 통곡을 하면서 길가에 묻고 다시 길을 떠났다. 조신이 아내와 나머지 네 자식을 이끌고 우곡현에 이르러 길가에 움막을 엮어 살았다. 조신 부부가 늙고 병들어 거동조차 불편하자 열 살짜리 딸아이가 동냥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사나운 개한테 물려 울부짖으며 움막 앞에 와서 쓰러져버렸다. 마침내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에 당신은 젊었고 얼굴도 잘 났으며 옷차림도 깨끗했지요. 맛있는 음식 하나라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도 생기면 당신과 내가 나누어 먹었고, 몇 자 되지 않는 옷감이 생겨도 우리는 나누어 옷을 지어 입으며 벌써 50년을 더불어 살았어요. 이처럼 우리 정분과 사랑은 그지없이 아름다웠건만, 근래 들어 쇠약해져 여기저기 안 아픈 곳도 없이 해마다 없던 병도 생기고, 굶주림과 추위는 나날이 더해 가는데

누구 하나 음식 한 그릇 나누어주는 사람도 없이 우리를 멸시하고, 아이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데 어느 겨울에 우리가 부부의 사랑을 나눌 것이며 즐거운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겠는지요? 오오, 붉은 얼굴에 아리뭇단 웃음도 풀잎의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고, 지초 난초 같던 꽃다운 약속 일랑 회오리바람에 버들꽃처럼 흩날려 없어지고 말았군요! 여보, 당신은 나 때문에 괴로움이 끊일 새 없고, 나 또한 당신 때문에 걱정이 끊일 새 없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으리까? 우리가 어찌하여, 전생에 무슨 죄가 많기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새 여러 마리가 함께 모여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로 나누어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가고 머무름을 우리 뜻대로 못 하고, 만나고 헤어짐도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니, 이제부터는 서로 헤어지는 것이 어쩔

는지요?”

조신이 듣기에 참으로 난감하고 부끄러웠으나 어쩔 도리가 없어 부인의 뜻대로 하기로 작정했다. 그리하여 부부가 각각 남은 아이 둘씩 나누어서 헤어져 각자 길을 떠났다. 작별하기 전에 아내가 말하기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터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세요.”라고 했기에 조신은 두 아이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부부가 작별을 하고 길을 떠나려는 참에 잠을 깨어보니 타다 남은 등잔불이 가물거리는데 밤이 깊은 뒤였다. 그렇게 해서 밤이 가고 아침이 밝았다. 조신이 아침에 보니 밤새 머리카락이 죄다 하얗게 세고 정신이 멍한 것이 도무지 인간세상 같지 않았다. 세상살이가 지난 밤 꿈처럼 그렇게 괴로운 것이라면 도무지 살고 싶지도 않았다.

아아, 내 탐욕이 이처럼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참으로 인간의 한 삶은 어리석은 미망(迷妄)에 불과한 것이구나! 조신은 관세음보살을 대하기가 그지없이 부끄러웠다. 조신이 꿈속에서 큰아들을 묻었던 해현에 가서 그곳을 파보니 돌로 만든 미륵불상 한구가 나왔다. 조신은 그 미륵상을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본사로 돌아가 장원 관리의 소임을 내놓고 자기 재산을 정리하여 정토사(淨土寺)를 세웠다. 그리고 나서 더욱 열심히 불도를 닦았는데 그 뒤의 소식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일연선사는 조신의 꿈 이야기를 소개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곰곰이 생각해보건대 비단 조신의 꿈만 그러하랴. 인간세상의 낙이란 것은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건만, 사람들은 오로지 즐거움만 좇아서 괴로움이 있음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백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 헛된 욕망으로 그르치지 말라. ㉞



고문단 간담회.



상담역 간담회.



자문역 간담회.

새해 사업·재원발굴방안등 협의

본회 고문, 자문역, 상담역 간담회 열어

본회 고문단과 자문역, 상담역 간담회가 열려 2014년 한해의 업무를 정리하고 2015년 새해의 사업계획 등을 협의했다.

12월 22일에 있는 고문단회의에는 신우식, 제재형, 조창하고문과 흥원기 명예회장이 참석, 광고유치 배가운동과

재원 확충방안 등 올해사업과 신입회원 유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12월 24일에 상담역, 26일의 자문역(의장 최서영, 간사 이재원)간담회에서도 대한언론인회의 신년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상담, 자문하면서 현재의 칠순잔치의 개선방안과 팔순잔

치 신설방안도 논의했다. 이같이 계속된 간담회에서 이사회가 결의한 협찬금에 십시일반 함께하기로 했고 특히 자문역간담회에서는 재원발굴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상담역간담회에서

는 박기병 상담역을 대표로 추대했다. 고문단모임의 경비는 이형균 부회장이, 자문역간담회 비용은 최서영 의장이 부담했다. ㉞

▶ 바로잡습니다 ◀

* 대한언론 345호 (2014.12월호) 18면 ‘생활 隨想 - 이제사 千字文을 외우고’ 제목 중 ‘千字文’을 ‘千字文’으로 바로 잡습니다.

* 20면 ‘여행 斷想 - 따뜻한 나라와 김만철씨’ 기사 내용 중 ‘연세대학교 박종철군’은 ‘서울대생 박종철군’으로 바로 잡습니다.



TravelPress
Korea's No.1 Travel Journal Since 1980

KOTFA DAILY
한국국제관광전·공식신문
Official Daily Newspaper of KOTFA

**Your Key to Successful
Marketing in KOREA**

TravelPress창간35주년(1980~2015)

" 관광언론(觀光言論), 외길 35년
참으로 행복(幸福)했습니다! "

한국최초(1980~2015)의 관광업계지
TRAVEL PRESS 발행인 / 회장 소 재필
(PATA Board Member / The Life Member of PATA)
(사단법인)국제관광인포럼(TITF) 회장
jpsho@travelpress.co.kr



Travel Press Media Group

#616, Doosan We've Pavilion, 58 Soosong-dong, Jongro-gu, Seoul, 110-858 Korea
Tel : (82-2) 2277-0755, 738-0777 E-mail : jpsho@travelpress.co.kr

李志雄 원로회우 별세

이지웅 원로회우가 12월 19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빈소는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대한언론인회는 12월 20일 오후 4시 김은구회장을 비롯 정기정 감사, 정운중 상임이사, 나용경 행사집행위원장, 서옥식 회우 등 임원 간부진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추도식을 갖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고 이지웅 원로 회우는 1922년 5월 23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 오산중학을 졸업하고 건국대 법학과와 일본 도쿄대 대학원, 고려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언론계는 중앙통신 기자로 출발



하여 대한일보, 평화신문, 연합신문 기사를 거쳐 1952년 중앙통신으로 자리를 옮겨 사회부기자, 취재부장, 경제부장, 정치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 이사 겸 국제국장, 출판총국장,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언론계를 떠나서는 국제해운 전문이사, 서울광학 대표이사,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운영위원장, 성곡언론문화재단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화랑무공훈장 수훈. 대한언론인회에서 전달한 부의금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찬조금으로 기탁했다. [4]

이지웅 선배님 영전에

오근영(분회 회우·전 연합통신 상무이사)

이렇게 선배님의 영전에 서니 만감이 교차하고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환칠한 키에 멋지게 어울리는 양복을 입으시고 환한 웃음을 띠시며 편집국을 도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정말 선배님은 멋진 신사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양복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했으며 좋은 체격에 잘 어울렸습니다.

곳은날에도 구두에는 흙 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우선 복장부터 살피시고 항상 복장을 깨끗하고 단정히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단정하지 못한 용모를 하고 잠바차림으로 취재원에게 접근하는 것은 회사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임은 물론 취재원에게 혐오감을 불러 일으켜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고 착실한 취재가 불가능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취재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없다고 강조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시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다. 대부분의 일선 취재기자들이 미혼이면서 총각들이어서 매일 와이셔츠를 갈아입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용모단정을 강조한 선배님께서는 기사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전에 출근 하시는 선배님께서는 통신 기사를 철저히 체크 하셨습니다. 매일 6편씩 발행되는 통신 기사를 한 줄 한 줄 엄격하게 읽



오근영 회우가 조사를 읽고있다.

어보셨습니다. 잘못된 기사를 썼거나 이를 제대로 체크 하지 못한 기자와 데스크는 엄격한 질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기사에 관해 엄격하고 단호했던 선배님은 업무시간 외에는 항상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업무가 끝나 저녁 때가 되면 선배님은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 사원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어울리곤 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특히 국방부 출입 때의 경험을 토대로 기자생활에서 필요한 얘기들을 폭넓게 들려주셨습니다. 폭 넓은 시야와 예리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통신기자는 책을 많이 읽고 바빠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자기지면이 없는 통신기자는 그렇게 해야만 언론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이제 선배님은 가셨습니다. 가시고 나니 선배님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부디 고이 잠드소서. 삼가 명복을 바랍니다. [4]

鄭然福 회우 별세

정연복 회우가 지난 12월 4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고인은 1935년 7월 10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출생, 관동대학 사학과와 경희대 행정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강릉상업고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



다. 언론계데뷔는 1966년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를 시작으로 출판부 차장, 주간제작부차장, 이코노미스트 부장 직을 역임했다.

정년퇴임 후엔 안양대학교 교수와 명지대 명예교수를 역임했다. [4]

정연복 회우님 영전에

김은구(대한언론인회 회장)

정연복 회우님!

이렇게 갑자기 회우님 영전에서 추도사를 올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달 전 만 해도 6·25 참전언론인회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이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부음입니까.

삼가 명복을 비오며 졸지에 상을 당하신 유가족 여러분께 충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선생계서는 일찍이 언론계에 투신하신 이래 언론계에선 보기 드문 사표로 자유언론창달에 열정을 쏟으셨지만 학구열 또한 남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계에 입문하셔서 중앙일보 사회부기자로 명성을 날리셨고 주로 출판 제작부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보셨습니다.

강원도 태백이 고향이신 선생계서는 1963년 관동대학교와 경희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신 학력은 강릉고등학교 교사와 안양대학교 교수, 명지대학교 명예교수직 경력이 말해 주듯이 바로 언론인이면서 참스승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므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대한언론인회와는 1987년 2월 인연을 맺으셨습다만



김은구 회장이 조사를 읽고있다.

회우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언론인회 발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북한 공산군의 6·25남침 전쟁이 발발하자 선생계서는 군에 입대하시어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셨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으신 것도 우리 후배들에겐 귀감이 되고도 남습니다.

저희들 대한언론인회 회우들은 우리에게 언론이 정도를 걷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회우님의 공적을 기리며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회우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4]



본회 산악회 송년산행 해변 트레킹으로 마무리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이상호)는 지난 12월 29일 20여명의 회우가 참여한 가운데 인천 영종도 용유해변에서 2014년도 산행을 마무리하는 송년산행 행사를 가졌다.

올 송년산행은 회우들의 겨울철 안전산행을 위해 용유도 해변을 찾아 해변 트레킹코스 3구간을 탐방하고 이어 왕산해수욕장에서 갑오년을 보내는 해넘

이 전경을 감상했다.

그러나 이날따라 구름이 끼는 날씨로 화려한 낙조와 함께 선명한 해님이 모습은 보지 못했으나 참석한 회우들은 이 해에 못다 이룬 난제들을 희망의 새 해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 본회와 정운중 명예회장 이상호 회장이 찬조금을 협찬해 주었다. [4]

金忠基 회우 별세

김충기 회우가 지난 12월 30일 새벽 지병으로 별세했다.

강북삼성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1월 1일 아침. 향년 77세.

고인은 1937년 9월 9일 전남 영암에서 출생, 경희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전남매일 신문 정치부장 취재부장, 호남매일신문 편집부국장, 서울지사장, 기획관리실장을 지냈으며 한국언론인금고 업무부장, 사무국장 겸 상임이사직도 역임했다. [4]

6 · 25공원

6·25전쟁 최대 격전지

양구군 해안면 편치볼에 건립 확정

기존 안보관광자원과 함께 세계적 안보관광지로 우뚝 선다



제4땅굴



전쟁기념관



을지전망대

회우동정 가나다순

역도산 추모특별프로에 출연



고두현(전 서울신문 대기자)본회 논설위원= 지난 12월 15일 밤 재일동포 프로레슬러 역도산(한국 이름 김신락) 사망 51주기를 맞아 종편 Jtbc가 마련한 추모특별프로에 출연해 역도산이 일본에서 천황 다음으로 유명해진 사연과 성공 비화를 밝혔다. 고두현 회우는 또한 이태영 회우(본회 상담역)와 함께 2015년 8월 발간 예정인 한국체육학회의 '한국체육인명 대사전'의 제작고문을 맡아 제작을 도와주고 있다.

박권상 기념회 위원장



김진배(전 국회의원)원로회우= 12월 9일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있었던 박권상기념회 창립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 이날 회의에서는 박권상 선생 1주기인 2월 3일 법인설립과 함께 추도식과 문집출판기념회를 갖기로 했다.

미국에서 새해인사



김진섭(전 경향신문 편집위원)원로회우= 본회 회원 중 최연장자인 김진섭 원로회우가 12월 29일 미국에서 국제전화를 통해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에게 새해인사를 보내왔다. 김 원로회우는 김은구 회장에게 '언론인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집행부 여러분께 격려를 보낸다'면서 600여 전화원의 2015년 새해 축복을 기원했다.

교양부문 우수도서 선정



김현(여행 연출가)회우= 김 회우 내외가 저술한 10번째 도서 '70대 인생을 재미있고 신나게 사는 이야기'가 한국 출판문화사업 진흥원이 정하는 2014 세종 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로 선정돼 전국 공공도서관과 벽지 초·중·고등학교 등 2,600여 곳에 배포될 예정이다.

은광문화훈장 받아



김후란(문학의집 서울 이사장)본회 자문역= 지난 10월 29일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은광문화훈장을 받았다.

유공봉사상 수상



마관수(전 KBS해설위원)회우= 지난 12월 5일 서울시장이 주는 유공봉사상을 수상했다. 마 회우는 서울 성북구 주민들과 '금우집 수리봉사단'을 만들어 생활이 어려운 집에 도배를 비롯하여 싱크대, 수도, 화장실, 지붕수리를 해주는 등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제4회 개인전열어

문준철(서화가·전 내외경제 편집국장)원로회우= 1월 14일부터 21일 까지 KBS



시청자갤러리(KBS본관)에서 제4회 문준철 개인전(가슴속 대화)을 연다. (개막식 생략·화분 화환 일절 사절)

창립 10주년, 한미클럽상 시상



봉두완(한미클럽회장)회우= 지난 12월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지낸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에게 한미클럽상을 시상했다. 한미클럽은 주미 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으로 이날 상을 받은 만줄로 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독재자들의 말로' 기고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본회 논설위원= 12월 3일 동아일보 A29면 오피니언란에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 독재자들의 말로'란 제목으로 기고.

'시선기록역사'에 작품전시



이명동(사진 왼쪽)-정범태 원로회우(사진 가운데)-전민조 회우(사진 오른쪽)=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속되는 대한민국의사박물관 소장 사진전 '시선기록역사'에 작품을 전시. 이 작품 전시에는 총 7명의 사진작가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사회봉사대상 수상



최상목(전 동아일보 편집부국장)원로회우= 12월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있는 제8회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언론부문 기부대상을 수상했다. 최 회우는 동아꿈나무재단에 1천 1백만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섰다.

'토벽' 11호 발행 출판기념회



한영탁(전 세계일보 논설위원)회우= 경북 영덕군 출신 문인들의 모임인 '土壁문학회' 회장으로 12월 8, 9일 안성시 서일농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박두진, 조병화 문학관을 돌아보는 문학기행을 가졌다.

재난구호 공로로 대통령표창 받아



한중광(재해구호협회 부회장)본회이사= 지난 15년 동안 재해·재난구호와 예방에 힘쓴 공로로 지난 12월 1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본회 기우회 연말대회 성황

우승 문준호-최연석 회우

대한언론인회 기우회(회장 정기정·본회 감사)가 주최한 2014년말 바둑대회가 지난 해 11월 28일 (금) 오후 2시 바둑 세계기원에서 열렸다. 5회 째를 맞은 이날 대회는 초겨울 비가 내린 을씨년스런 날씨임에도 14명의 회우가 참가하여 열전을 벌였다.(사진)

한 판의 바둑이 항상 그렇듯이 이날 대국장에서도 흑백 돌이 한수 한수 놓일 때 마다 대국자들의 탄식과 환성이 곳곳에서 터졌다.

대국 결과는 A조(1~3급)에서 우승 문준호 회우, 준우승 이상우 회우, 3위 정기정 회우, B조(4급 이하)에서는 우승 최연석 회우, 준우승 김세경 회우, 3위 이성호 회우가 각각 차지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박기병 6·25 참전언론인회 회장이 전자 제품 5점을 시상품으로 기증하여 회우들의 박수를 받았다. 참석 회우들은 대회가 끝난 후 인근 국일관에서 송년 회식을 갖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막걸리 잔으로 달랐다.

협찬금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언론인회 임원진이 지난번 이사회에서 본회에 협찬금을 내기로 결정한 뒤로 임원진은 물론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이 협찬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은구 회장	100만원
한영섭 원로위원장	100만원
김충한 부회장	80만원
이형균 부회장	50만원
인보길 부회장	50만원
김성배 감사	50만원

강한필 이사	30만원
박용배 이사	30만원
정운중 상임이사	30만원
정두진 이사	50만원
김영호 이사	30만원
이상호 이사	30만원
한중광 이사	30만원
김용발 회우	160만원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	300만원
조성한 태봉출판사 사장	100만원

▶ 주소·전화번호 변경 ◀

이용권 회우= 서울 은평구 진관1로 21-10 은평뉴타운 122동 501호 / 010-5355-4002
박기병 회우= 010-3780-0520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4년 11월 29일 부터 12월 29일까지)

강진형(15)	김주철(14)	박강지(14)	안상현(15)	양성목(15)	이우진(15)	(입회비,14)	홍성혁(15)
고수웅(15)	김준하(15)	박종서(15)	윤양중(15)	유무정(14)	이종문(14)	정연복(13,14)	황대연(15)
권도호(14,15)	김진기(15)	백일진(15)	안평선(14)	오동환(14)	이종세(14)	장효상(14)	최신호(15)
권도홍(14,15)	김충기(14)	백환기(14)	윤익한(15)	윤병찬(14)	이종기(15)	지정식(14,15)	최종천(입회비)
김성묘(15)	김 화(15)	서옥식(15)	이구열(15)	윤석웅(15)	이태영(15)	전의식(14)	탁성만(15)
김영호(15)	노영순(15)	성만복(14)	이두환(14)	이광영(14)	임덕규(14)	지용우(14)	한상규(15)
김양섭(15)	동문성(15)	성병욱(15)	이민희(14)	이병대(15)	정구중(14)	정두진(15)	한양인(14)
김영환(15)	맹태균(15)	송선무(15)	어경택(14)	이 선(15)	전영우	정재필(15)	황우권(14,15)
김원재(15)	박명근(15)	신현구(15)	이억순(15)	이성춘(14)	(입회비,14)	정종표(14)	홍원기(15)
김정일(15,16)	박 실(15)	심상대(15)	이창열(15)	이용화(15)	조희곤	한강수(14)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500만 오디언스의 성공스토리

확~ 달라진 한경!

- ✓ 더욱 분명한 논조로 세상의 시사비비를 가립니다!
- ✓ 깔끔한 비주얼 편집으로 보는 즐거움을 배가했습니다!
- ✓ 한경-only 콘텐츠로 정보의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 ✓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사옥, 독자들의 편안한 쉼터입니다!
- ✓ 한발 빠른 모바일 콘텐츠로 뉴미디어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성공을 부르는 습관



고교생에게 경제 마인드를
전국 고등학교에 경제 논술신문 '생글생글'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문화 게릴라' 한경
사옥 1층 '한경 갤러리'에서는 거장들의 작품전과 음악회가 연중 개최됩니다.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
세계적 석학, CEO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재포럼을 통해 경제와 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합니다.



수준이 다른 모바일 콘텐츠
국내 언론 최초의 아이패드 뉴스 서비스는 신문보다 빠른 업데이트로
비즈니스맨의 아침을 깨웁니다.

